연구보고 2018-0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

김은영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1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

연구책임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1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

발행일 2018년 5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57-2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2017년 12월 27일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혁신방안이 발표되고,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유아교육혁신방안의 큰 방향은 교육격차 해소와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의도와 달리 영유아 학부모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연구를 부탁하였고, 우리 연구소는 홍보자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적절한 내용을 찾기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친 국민참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영어교육을 비롯한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적기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끄집어내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다. 국민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보고서와 별도의 산출물로 영유아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널리 사용되어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영유아 학부모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18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연구 내용 ····· 12
3. 연구 방법 ····· 12

Ⅱ. 연구의 배경 15

1. 영유아기 적기교육의 중요성 ····· 17
2. 취학전 영어교육 실태 ····· 26
3.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 34
4.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외 연구 ····· 40

Ⅲ. 국민참여 워크숍 45

1. 문제점 발견 ····· 47
2. 개선점 찾기 ····· 49
3. 아이디어 발전 ····· 51
4. 개선점 구체화 ····· 52
5. 결과 도출 ····· 53

Ⅳ.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55

1. 시나리오 구성 ····· 57
2. 시나리오 전개 ····· 58
3. 홍보자료 제작 ····· 59
4. 홍보자료 활용 ····· 59

Ⅴ. 정책 제언 61

1. 정책 방향 ····· 63
2. 정책 방안 ····· 64

참고문헌 67

부록 75

부록 1. 영유아 적기교육 국민참여 워크숍 자료 ····· 77
부록 2.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 95

표 목차

〈표 Ⅰ-3- 1〉 국민참여 워크숍 일정 및 대상 ····· 13
〈표 Ⅱ-2- 1〉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비율 ····· 27
〈표 Ⅱ-2- 2〉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 ····· 27
〈표 Ⅱ-2- 3〉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선호도 ····· 28
〈표 Ⅱ-2-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이용비율 ····· 28
〈표 Ⅱ-2- 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월평균 지불비용 ····· 29
〈표 Ⅱ-2- 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선호도 ····· 29
〈표 Ⅱ-2- 7〉 반일제 학원 이용 시작 시기 ····· 30
〈표 Ⅱ-2- 8〉 반일제 학원 월평균 지불비용 ····· 30
〈표 Ⅱ-2- 9〉 반일제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비율 ····· 31
〈표 Ⅱ-2-10〉 반일제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지불비용 ····· 31
〈표 Ⅱ-2-1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비율 ····· 32
〈표 Ⅱ-2-12〉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 32
〈표 Ⅱ-2-13〉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월평균 지불비용 ····· 33
〈표 Ⅱ-2-14〉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주당 이용시간 ····· 34
〈표 Ⅲ-1- 1〉 발견된 문제점 ····· 47
〈표 Ⅲ-2- 1〉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 49
〈표 Ⅲ-4- 1〉 거부 반응과 설득 포인트 ····· 52
〈표 Ⅲ-5- 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 ····· 53
〈표 Ⅳ-1- 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시나리오 구성안) ····· 57
〈표 Ⅳ-2- 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시나리오 전개안) ····· 58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 적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는 조기교육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되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영어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선행연구 분석과 다양한 계층의 인식에 기초하여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함.

□ 이상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영유아 적기교육의 의미 탐색

□ 영유아 적기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인 조기교육의 현황 및 영향 분석

□ 적기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상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부모의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개발

□ 학부모의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 제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민참여 워크숍 실시

□ 홍보자료(동영상, 카드뉴스) 개발

2. 연구의 배경

가. 영유아기 적기교육의 중요성

□ 적기교육의 의미

- 특정한 발달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모든 발달 영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전인발달을 지향하여야 함.
-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정상적인 두뇌발달을 이루도록 해야 함.
  -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과 개별적 발달을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함.

□ 놀이를 통한 적기교육

- 놀이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으로 내적 동기에 근거한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즐거운 활동임.
- 여러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는 신체발달(신체성장 촉진, 기본운동능력 및 협응능력 향상), 인지발달(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개념 발달, 문제해결능력, 자기조절 능력), 언어발달, 정서·사회성 발달(불안수준 저하, 타인정서 이해 등 정서지능 촉진, 자신의 행동과 정서조절)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음.

□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과 놀이

-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 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등으로 정리됨.
- 놀이는 사회정서 발달, 창의성, 자기 조절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발달 등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취학전 영어교육 실태

□ 최근 조사된 김은설 외(2016)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취학전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봄.

□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체육(50.3%)이었고, 영어(45.4%)는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에 비해 유아는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59.7%로 높아짐.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현황

-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성화활동 이용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은 영어(46.9%), 체육(46.1%), 미술(4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지불비용, 특별활동 선호도에 있어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옴.

□ 반일제 학원 이용 현황

-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45.5% 정도는 49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당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더 어린 나이부터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어학원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평균 587,100원으로 기타 유형의 반일제 기관의 비용보다 약 345,3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현황

- 영유아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니는 시간제 교육의 유형별 이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학원 형태의 기관을 다니는 경우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서는 학습지(14.1%)였음.
- 시간제 학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는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학원의 경우, 이용비율이 7.5%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간제 학원 중 부모들은 영어학원에 가장 높은 비용(평균 119,2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는 기관별로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었음.

다.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실시에 대해 꾸준한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취학전 영어교육이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임(김민진, 2012).

□ 취학전 영어교육의 효과성 관련 연구

- 취학전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영유아 시기가 모국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우남희, 2007),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서유헌, 2002; 신동주 2007에서 재인용) 등을 기반으로 취학전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밝혀옴.
- 취학전 영어교육과 단기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으나(김근영·김유리·박혜경·김가희, 2016; 마송희, 2003; 황혜신, 2004; 홍채연·허근, 2013) 장기적 효과로의 연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음.
- 영어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아들의 창의력 점수가 다른 그룹의 유아들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고(우남희, 2007), 영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은 사회정서 발달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음(하연희·천희연, 2005; 최지영, 2008).

□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 취학전 영어교육에 있어 교육소비자로서의 주도권을 지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로는 자녀가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취학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반면 부모들은 실제 각 기관의 영어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방법이 유아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등 상세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현장 속 대다수의 교사들은 취학전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결과가 많았으나(김경철·홍정선, 2002; 장복명·임원신, 1999; 이현주·정영숙·장혜자, 2004; 김근혜·홍순옥·탁장환, 2014), 실제 실행과정에 있어 영어담당 교사의 전문성, 교수방법의 적절성,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라.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외 연구

□ 유아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 초기(1960년대 이전)의 이중언어 관련 연구는 대체로 결함적 관점(deficit perspectives)으로 이중언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1960~70년대 이후의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중언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 있음.
- 이중언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의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2언어(Second Language)였으며,

이는 외국어 맥락에서의 영어교육 효과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외국어 불안(Foreign Language Anxiety)

- Horwitz, Horwitz과 Cope(1986)의 외국어 교실에서의 불안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학생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fear level)가 언어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Horwitz(2000)는 외국어 불안의 원인 중 낮은 모국어 수준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음.
- Cohen & Norst(1989)의 연구는 외국어 학습 과목은 다른 과목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 언어는 자아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지적을 자신 스스로,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음.
-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외국어교육이 유아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다른 학습과 달리 정서적인 문제를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음.

□ 유아기 외국어교육의 효과

- 이중언어교육의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이 적기라고 밝혀진 바는 없으며 연구자의 관심과 ESL, EFL 등 학습자의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de Bot(2014)은 외국어교육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8년간 끊임없이 배워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함. 즉, 유아기 외국어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하지 않으면 외국어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3. 국민참여 워크숍

□ 국민참여 워크숍은 총 5회 개최하였으며, 문제점 발견(discover), 개선점 찾기(define), 아이디어 발전(develop), 개선점 구체화(design develop), 결과 도출(deliver)의 5개 단계로 추진됨.

가. 문제점 발견

□ 국민참여 워크숍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우리아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나온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왜!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사교육으로라도 할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 약화’, ‘왜! 영어만 금지?’,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부재’ 등이 있었음.

나. 개선점 찾기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결 아이디어를 구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이후 공교육 내 영어교육 내실화, 보다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환경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콘텐츠 제공,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공교육 신뢰 회복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됨.

다. 아이디어 발전

□ 청소년 대상 워크숍,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통한 교사들의 인식, 전문가 인터뷰 등의 추가 과정을 통해 국민참여 워크숍에서의 결과를 발전시킴.

라. 개선점 구체화

□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내용과 방법을 찾고자 함. 연구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적기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의 거부 반응 포인트와 설득 포인트를 찾아감.

마. 결과 도출

□ 5회의 국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우선 교육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 적기교육의 중요성과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함.

4.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로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함.

□ 동영상은 선행연구 분석과 국민참여 워크숍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인터뷰, 유치원과 어린이집 활동 촬영 등을 통해 제작함.

- 예상 시나리오: 도입-전개(실증자료 제시)-핵심(적기교육 콘텐츠)-마무리(미래 인재상 제시)
- 실제 작업내용: (도입)지금 내 아이는?-너무 불안해요-(전개)영유아기 적기교육은?-새로운 세상, 사람이 중요한 시대-(핵심)미래의 귀중한 자원인 우리 아이, 지금 필요한 적기교육은?-(마무리)호기심과 맞바꾼 부모의 불안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 카드뉴스는 동영상 내용 중 핵심 장면을 추출하여 영상스틸컷으로 제작함.

5. 정책 제언

□ 정책 방향

- 영유아기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시작된 연구이지만, 연구를 추진하면서 영어교육 금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유아기 적기교육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
-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영유아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안

- 영유아 특성, 영유아 적기교육,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자녀교육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아 대상 학원은 학습을 위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방과후 프로그램 모두 놀이 중심으로 편성하여 영유아의 자율성, 호기심,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함.
- 취학 전에 마음껏 놀아도 초등학교 적응에 무리가 없도록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비함.
- 초·중등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큰 그림과 로드맵 제시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함.
-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함.
-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직업 간 급여 편차를 최소화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영유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영유아 적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영유아 조기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조기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심리로 영유아 시기부터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자녀에게 영유아기부터 학습 위주의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지나친 학습에 노출시키는 것은 영유아 조기교육의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떠나 영유아기에 누려야 할 충분한 휴식과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조기교육과 맞바꾸는 것은 정작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인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적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는 조기교육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되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영유아기 영어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 분석과 영어를 포함한 조기교육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적기교육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영유아 적기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인 조기교육의 현황 및 영향에 대해 정리하되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어 조기교육에 초점을 둔다.

셋째, 적기교육에 대해 영유아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부모의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를 개발한다.

넷째, 학부모의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영유아 적기교육과 조기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영유아 조기교육 관련 현황 및 실태자료를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나. 국민참여 워크숍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취학전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인식과 애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해 국민참여 워크숍을 5회 개최하였다. 각 워크숍에는 원내 연구진과 영유아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4~5명과 워크숍 진행전문가 3명이 참석하였으며, 회당 2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1~2차 워크숍은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유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2차 워크숍에서는 영아 학부모와 초·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에서는 1차의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인식과 비교하여 유아기 이전의 영아기 및 유아기를 보낸 이후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4차 워크숍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였다. 3~4차에서는 1~2차에 참석했던 학부모 중 일부와 새로운 학부모를 추가 대상으로 섭외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전에 참여했던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을 좁혀 나가고자 하였다.

5차 워크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겪었던 영유아기 영어교육을 비롯한 조기교육에 대한 회상을 통해 당시 느꼈던 불만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영유아기 때 받았던 교육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Ⅰ-3-1 국민참여 워크숍 일정 및 대상

워크숍 주제		일정	대상
문제점 찾기-무엇이 불안한가	1차	3.22.(목) 11:00	3-5세 학부모 5인, 워크숍진행 전문가 3인
	2차	3.23.(금) 11:00	0~3세, 7~17세 학부모 5인, 워크숍진행 전문가 3인
해결방안 찾기 -불안감 해소의 터치포인트	3차	3.29.(목) 11:00	학부모 5인, 워크숍진행 전문가 3인
	4차	3.30.(금) 11:00	학부모 4인, 워크숍진행 전문가 3인
청소년이 경험한 영유아기 교육, 불만과 해결방안	5차	4.07.(토) 09:00	청소년 5인, 워크숍진행 전문가 2인

국민참여 워크숍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참여자를 소개하지 않고 참여 방식만 간단하게 설명한 후 바로 진행하였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구두로 답하기보다는 메모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워크숍진행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모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지만 동의를 하는 메모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던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국민참여 워크숍에서 구두보다 메모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을 잘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는 참여자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참여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 홍보자료 개발

문헌연구와 국민참여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홍보자료를 개발하였다. 홍보자료는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3분 내외의 동영상 자료로 개발하였으며, 동영상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여 카드뉴스로 제작하였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I

연구의 배경

1. 영유아기 적기교육의 중요성
2. 취학전 영어교육 실태
3.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4.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외 연구

Ⅱ. 연구의 배경

1 영유아기 적기교육의 중요성

적기교육이란 성장과 발달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기숙, 2015). 연령이나 발달단계, 또는 개인 특성에 따라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정도가 다르므로 시기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기 적기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기교육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고, 적기교육을 실행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놀이의 개념과 놀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이를 미래 사회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적기교육의 의미

1) 전인발달을 지향하는 교육

일반적으로 발달에 대해 설명할 때 연령이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발달의 각 영역들은 구분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는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이기숙, 2015).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등의 여러 측면이 통합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특징이다(박성연, 2006).

이처럼 발달의 각 측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든 영역을 고르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은 신체 성장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지적 능력이 다소 뒤처지기도 한다(박성연, 2006). 특히 영유아기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인지발달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어,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 수준이 높고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난 유아는 학습준비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실제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Hirsh-Pasek & Golinkoff, 2008). 또한 친사회적인 아동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며 교사와 온정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수준을 예측해 준다(Birch & Ladd, 1997).

이처럼 영유아 교육은 특정한 발달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고른 발달을 강조하는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심성경·백영애·이영희·함은숙·변길희, 2010). 즉, 영유아로 하여금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발달 영역 간 의미 있는 연결을 이루고 최적의 학습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3). 현재 운영되고 있는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도 특정 영역에 치우친 경험을 하는 영유아는 균형 있게 발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 고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인적인 성장에 기초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2013).

2)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가) 뇌 기반 적기교육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뇌에 의해 통제된다. 시기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며, 각각의 부위별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서유헌, 2009). 뇌과학자들은 뇌 부위별 최적의 뇌 발달 시기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교육에 적용하여 영유아들이 가장 적합한 교육을 경험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머리의 좋고 나쁨은 신경세포회로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신경세포회로는 3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서유헌, 2009). 또한 이 시기에는 특정 영역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고루 발달하므로, 다양한 영역의 정보와 지식을 활발하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서유헌, 2009). 따라서 언어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플래시 카드를 통한 일방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경우 신경회로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서유헌, 2009). 특히 영아기는 감정의 뇌가 일생에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발달되는 시기이므로(서유헌, 2009), 인지적 자극보다는 충분한 애정과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력이나 판단력,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한다(서유헌, 2009).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인성교육의 적기로(서유헌, 2009),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언어기능과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초등학생 시기에 발달한다(서유헌, 2010). 따라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국어교육 또한 그러하다(서유헌, 2010). 그러나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선행하여 시킨다면 전두엽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없어 전두엽 발달은 지체되고, 측두엽은 과잉된 자극으로 손상받게 된다(서유헌, 2010).

이처럼 특정 뇌기능은 특정 시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발달하고, 시기에 맞지 않는 교육은 오히려 뇌 발달을 저해하므로(서유헌, 2010), 뇌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효과가 가장 높이고 정상적인 두뇌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실제[1)]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는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과 개별적 발달을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

1) https://www.naeyc.org/resources/topics/dap(2018. 4. 14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를 제시하였다. DAP는 영유아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며, 이 시기의 효과적인 조기 교육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최적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지침을 담고 있다.

DAP의 세 가지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다. 연령별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발달과 학습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영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놀이 및 상호작용 장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별 아동의 관심사, 능력 및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을 확보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영유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영유아의 삶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와 가치를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의미 있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즉,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과 개인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영유아의 삶의 전반을 반영하여 가장 최적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 놀이를 통한 적기교육

영유아에게 놀이는 일상이고 가장 좋은 학습의 수단이 된다. 특히 놀이가 가진 재미와 자발성은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심성경·백영애·이영희·함은숙·변길희, 2010). 영유아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놀이의 개념과 특성, 놀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놀이의 개념

그동안 여러 학자들은 놀이의 개념을 일과 비교하여 정의하였는데, Dattner (1969/1995)가 제시한 놀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는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이지만 일은 외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둘째,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일은 생산과 관련된다. 셋째, 놀이를 지배하는 규칙은 자발적으로 형성되지만 일은 외부의 강요된 규칙에 의한다. 넷째, 놀이는 현실 세계의 초월이 가능

하지만 일은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진다."(심성경 외, 2010, p.20에서 재인용). Wing(1995) 또한 놀이를 일과 비교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첫째, 일은 '해야 하는' 것으로 일은 외적으로 통제된 활동인데 비해 놀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적으로 통제되는 활동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다. 둘째, 일에는 교사의 기대와 참여가 많고 활동의 결과를 교사가 평가하지만, 놀이에는 교사의 기대나 평가가 거의 없다. 셋째,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놀이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넷째, 일은 인지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만 일은 최소한의 인지적 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일에서는 가끔씩 즐거움을 느끼지만 놀이는 언제나 즐거운 것이다"(심성경 외, 2010, pp.20~21에서 재인용). 놀이와 일을 비교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놀이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으로 내적 동기에 근거한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즐거운 활동이다.

2) 놀이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 놀이와 신체발달

놀이가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 신체놀이가 다른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놀이는 신체 움직임이 많아 신체놀이를 통해 신체성장이 촉진되고 바른 자세를 형성하며, 기본운동능력 및 협응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심성경 외, 2010).

나) 놀이와 인지·언어발달

놀이는 재미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연습하도록 하여 인지발달을 촉진하며(박성연, 2006),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운동기술을 습득하며 정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Hirsh-Pasek & Golinkoff, 2008). 또한 놀이는 호기심을 충족해 주고 관심사를 실현해 보는 기회가 되어(박성연, 2006), 영유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개념을 발달시킨다(심성경 외, 2010). 예를 들어, 공굴리기를 통해 공의 모양이나 색깔을 인지하는 등 물리적 지식을 획득하고

공이 굴러가는 방향과 공에 주어지는 힘을 비교하는 등 논리·수학적 지식도 확장해 간다(심성경 외, 2010). Seo와 Ginsburg(2003)도 놀이를 통해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 발달한다고 보았다(Hirsh-Pasek & Golinkoff, 2008에서 재인용). 또한 놀이는 읽기 능력과도 관련되어, 가령 4세 유아의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은 언어 및 읽기 준비 상태를 예측해 준다(Bergen & Mauer, 2000). 평상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놀이를 하는 핀란드 아동들의 읽기 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었다(Alvarez, 2005).

새로운 놀잇감을 접하거나 놀이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이 발달된다(Bornstein, 2007). 전소영(2011)은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고 하였고, 박가숙(2001)은 놀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강영식·마지순·안라리, 2013에서 재인용). 즉, 놀이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또한 박미정과 엄정애(2017)는 유아의 놀이가 늘어날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놀이는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또래와의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 발전된 언어능력은 문해능력의 발달을 가져와 놀이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대화와 문해능력 간에 지속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ckinson & Tabors, 2001). 특히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래 간 대화는 말하기 및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었다(Christie & Roskos, 2006).

다) 놀이와 정서·사회성발달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나 긴장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며(박성연, 2006), 종종 고통을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Barnett(1984)은 유치원 등원 첫날 어머니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느낀 영유아는 자유놀이 시간에 갈등 해결을 주제로 놀이를 한 후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Hirsh-Pasek, Golinkoff, Burk, & Singer,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집단놀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함께 노는 또래와 놀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효림·엄정애,

2005). 특히 가상놀이는 원인, 결과, 정서의 신호를 고려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YoungBlade & Dunn, 1995; Hirsh-Pasek et al., 2008에서 재인용). Galyer와 Evans(2001)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극놀이에 참여하는 유아가 다른 유아에 비해 더욱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놀이가 다른 놀이에 비해 복잡하여 유아가 정서적으로 집중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내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효림·엄정애, 2005). 한편, 거친 신체놀이를 즐기는 유아도 정서지능 수준이 높다(정나영·정계숙, 2016).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도 놀이가 영향을 준다(Hirsh-Pasek et al., 2008). 다양한 놀이 상황에 직면하는 동안 유아는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박미정·엄정애, 2017). 흥미로운 사실은 거친 신체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유아일수록 자기조절력이 높고(주보라·김은심·유지안, 2015; 최미숙·정유진, 2017), 협력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Scott & Panksepp, 2003), 또래 간 적응수준이나 인기도가 높다는 것이다(김영아·신혜영, 2007; 이지영·이경옥, 2008).

다.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과 놀이

1)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20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 3개 중 1개가 사라지고, 2016년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어린이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이와 같은 전망은 영유아들이 앞으로 직면할 문제와 위험상황에 대한 적응 및 대처 능력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러 학자들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olinkoff와 Hirsh-Pasek (2016)은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여섯 가지 키워드, 이른바 '6Cs'를 제시하였다. 그 여섯 가지 핵심역량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Confidence)이다. ‘협력’이란 다른 모든 역량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며,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Golinkoff & Hirsh-Pasek, 2016). ‘콘텐츠’는 창의적인 지식습득과 관련되며,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사실을 검증하고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Golinkoff & Hirsh-Pasek, 2016). ‘창의적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관점이나 연결을 달리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감’은 의지와 끈기로 설명된다(Golinkoff & Hirsh-Pasek, 2016).

다중지능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Howard Gardner(2007)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훈련된 마인드(the disciplined mind), 종합하는 마인드(the synthesizing mind), 창조하는 마인드(the creating mind), 존중하는 마인드(the respectful mind), 윤리적인 마인드(the ethical mind)를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훈련된 마인드’이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통달한 마음을 말하며, ‘종합하는 마인드’는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다(Gardener, 2007). ‘창조하는 마인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제기하며 예기치 못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Gardener, 2007). ‘존중하는 마인드’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은 수용하고 협력하려 노력하는 마음을 말하며, ‘윤리적인 마인드’는 존중하는 마음보다 더 추상적인 것으로 사회의 욕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다(Gardener, 2007). Gardener(2007)는 다섯 가지 미래 마인드를 잘 계발한 사람은 미래 사회에 매우 적응적인 인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미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와 최정순(2012)은 미래 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인성역량, 지적역량, 사회적역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인성역량에는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대인관계능력, 개방성 및 유연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포함되고, 지적역량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기초학습능력 등이 포함된다(이근호 외, 2012). 사회적역량은 대인관계 능력, 민주시민 의식, 도덕적역량,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근호 외, 2012).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 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

량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과 놀이의 관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사회(World Economic Forum, 2016)에서 영유아가 적응적이고 유능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놀이는 신체발달은 물론 정서·사회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 등의 인지발달 영역 이르기까지 유용한 교육가치가 있으며(고여훈·엄정애, 2010), 이는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선애와 이채호(2014)의 연구에 의하면, 놀이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창의성은 높아지며, 가정환경, 놀이, 교사창의성 중 놀이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이 높은 유아들은 놀이성이 낮은 유아들보다 창의성 수준이 높고, 특히 그 하위요인 중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유영의, 2011). 이는 놀이가 정해진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열려 있는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Hirsh-Pasek & Golinkoff, 2008). 특히 가상놀이는 열린 결말(open-ended)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가상놀이를 할 때, 창의적 목적에 맞추어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사물이나 정신적 표상을 조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구성해 나간다(Hirsh-Pasek et al., 2008). 이러한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며,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 발달의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Csikszentmihalyi, 2013).

또한 놀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어떤 놀이를 누구와 할지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Hirsh-Pasek & Golinkoff, 2008). 또한 영유아의 놀이는 보상과 같은 외적인 동기와 무관하고, 놀이상황에 몰입하는 것은 놀이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으로 인한 내적 동기에 기반한다(Hirsh-Pasek et al., 2008). Csikszentmihalyi(2013)는 이러한 내적 동기를 통해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되고 이것이 곧 창의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놀이를 하는 가운데 영유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조

절하며(박미정·엄정애, 2017), 반복적,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Hirsh-Pasek et al., 2008).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능력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하다. 또한 놀이 도중에 또래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한다(Christie & Roskos, 2006).

2 취학전 영어교육 실태

조기 영어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좁게는 취학전 영어교육 실태조사, 넓게는 사교육 혹은 특별활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연구(우남희·이종희, 1994; 이혜란, 1995; 장복명·임원신, 1999; 이영환·한영숙·정남숙, 2001; 이윤진·문무경·김문정, 2011; 김민화·유연옥, 2012; 천희영·서현아·좌승화·배미숙, 2011; 배미숙·서현아, 2011; 김은설 외, 2016; 서은경·곽승주, 2017, 김은영 외, 2017) 되어왔다. 이들 연구 중 실태조사로 명명되기는 하였지만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했거나, 현재 시점에 비추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과거의 조사결과를 기술하기보다는 비교적 최근 조사된 김은설 외(2016)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취학전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다음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체육(50.3%)이었고, 영어(45.4%)는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를 나눠서 살펴보면, 유아의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59.7%로 높아지며, 이는 체육 프로그램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표 Ⅱ-2-1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비율

단위 :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36.8	37.1	50.3	5.4	8.3	14.0	0.4	25.8	2.2	45.4	0.5	5.7
영유아구분												
영아	22.8	22.5	34.0	1.1	2.4	4.8	-	19.9	0.1	18.8	-	4.1
유아	44.3	44.9	59.1	7.8	11.5	18.9	0.6	28.9	3.2	59.7	0.7	6.5
생활연령												
1세	15.7	17.3	21.3		1.2	0.8	-	17.1	-	6.6	-	2.4
2세	27.1	26.0	41.2	1.6	3.1	6.8		22.2	0.2	25.1		5.1
3세	44.3	45.2	57.3	2.6	7.1	13.9	0.4	31.0	1.2	54.7	1.2	9.1
4세	45.5	46.9	65.5	7.2	11.9	20.3	0.6	30.0	3.9	65.5		4.7
5세	41.9	42.7	55.8	14.9	16.7	24.0	1.1	25.3	5.4	61.0	0.6	4.8

주: 1) 복수응답 문항임.
2) 응답 대상 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총 1,745명임.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98, 〈표 Ⅵ-4-2〉.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어(25,700원), 컴퓨터(25,400원), 외국어(25,200원)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과목이라도 연령에 따라 비용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2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 원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22.6	20.0	21.6	16.6	17.8	19.2	25.4	20.6	21.1	25.7	25.2	21.0
영유아구분												
영아	20.0	17.1	22.6	19.3	18.1	15.8	-	20.2	20.0	24.9	-	19.7
유아	23.2	20.8	21.2	16.4	17.8	19.7	25.4	20.7	21.1	25.9	25.2	21.4
생활연령												
1세	19.0	13.9	26.5		30.0	20.4		19.5		23.8		18.4
2세	20.2	18.0	21.8	19.3	16.1	15.5		20.3	20.0	25.0		20.0
3세	22.3	21.4	21.4	16.6	25.3	21.2	28.4	21.6	16.1	25.7	29.4	24.2
4세	24.6	20.6	23.0	19.3	16.6	21.9	28.4	21.0	18.8	26.5		13.9
5세	23.1	20.4	19.2	15.0	14.2	16.7	22.4	18.8	23.9	25.4	14.1	20.0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02, 〈표 Ⅵ-4-7〉.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체육이 3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22.7%)이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영아 자녀를 둔 부

모에 비해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영어에 대한 선호가 7.6%p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시,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는 10%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영어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 영어 사교육 시장 내 학원, 학습지, 교재교구 개별교육 등의 이용률 변화 추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표 Ⅱ-2-3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계	(수)
전체	11.7	11.0	33.9	0.6	0.6	7.1	-	10.3	0.3	22.7	1.7	100.0	(1,207)
영유아구분													
영아	12.3	12.4	35.7	1.0	4.0	14.1	17.9	2.6	0.1	16.7	2.8	100.0	(328)
유아	11.5	10.5	33.4	0.5	0.8	8.1	0.1	9.1	0.4	24.3	1.5	100.0	(879)
2012년	8.5	9.7	26.4	1.6	1.7	9.8	-	8.4	1.2	32.0	0.7	100.0	(1,003)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04, 〈표 Ⅵ-4-10〉.

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현황

다음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성화활동 이용비율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은 영어(46.9%), 체육(46.1%), 미술(4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이용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43.5	38.1	46.1	18.5	11.7	16.5	0.6	22.8	3.9	46.9	1.6	9.1
연령												
3세	41.1	34.1	42.5	14.4	8.8	14.9	-	29.4	3.5	43.5	2.1	6.8
4세	44.3	41.4	47.3	17.4	12.9	17.9	0.5	24.4	2.1	46.9	1.1	10.2
5세	44.0	37.3	46.9	21.6	12.3	16.1	1.1	17.8	5.6	48.7	1.6	9.4
2012년	52.4	27.1	44.8	23.3	9.6	14.5	0.2	25.2	1.5	66.2	1.1	3.1

주: 1) 복수응답 결과임.
2) 응답 대상 수는 유치원 이용 아동 총 742명임.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286-287 〈표 Ⅶ-2-35〉.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월별 이용비용이 31,700원으로 가장 고가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22,500원), 컴퓨터(22,3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월평균 지불비용

단위: 천 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22.5	18.3	19.1	17.3	15.9	16.4	22.3	20.9	20.0	31.7	15.8	27.0
표준편차	17.7	13.2	13.4	21.3	12.6	11.8	12.6	17.8	20.0	24.6	12.1	22.4
최소값	-	-	-	-	-	-	10.0	-	-	-	-	-
최대값	175.0	88.0	90.0	175.0	50.0	50.0	50.0	100.0	75.0	150.0	50.0	100.0
(수)	(341)	(327)	(377)	(135)	(94)	(146)	(5)	(180)	(32)	(366)	(14)	(67)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90 〈표 Ⅶ-2-40〉.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71명의 응답자 중 31%가 영어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25.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조사에서와 같이 부모들은 체육, 영어와 같은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별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계(수)	
전체	15.3	5.6	25.4	2.9	1.0	7.4	0.7	7.2	31.0	0.1	3.3	100.0	(571)
연령													
3세	12.5	4.1	27.6	1.1	0.5	5.4	-	10.8	37.1	-	0.9	100.0	(125)
4세	13.6	7.0	23.5	2.1	2.4	9.5	0.6	8.7	29.7	-	2.8	100.0	(227)
5세	18.5	5.1	25.9	4.6	-	6.7	1.1	4.0	28.7	0.4	5.0	100.0	(219)
2012년	14.9	6.5	14.7	4.7	1.6	12.5	0.4	7.0	35.1	0.4	1.6	100.0	(512)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93 〈표 Ⅶ-2-44〉.

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다음은 반일제 이상 운영하는 기관을 다니고 있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영어, 미술 등)학원, 체육센터, 놀이학교, 종교기관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결과이다.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

는 영어학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45.5% 정도는 49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더 어린 나이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표 Ⅱ-2-7 반일제 학원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기				
	영어학원	기타	계(수)		2012년
12개월 이하	-	-	-	-	-
13~24개월 이하	0.3	17.0	7.4	(4)	1.8(3)
25~36개월 이하	25.4	16.8	21.7	(10)	20.4(27)
37~48개월 이하	28.8	51.6	38.5	(18)	35.4(39)
49개월 이상	45.5	14.5	32.3	(9)	42.5(43)
계	100.0	100.0	100.0	(41)	100.0(112)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309-310 〈표 Ⅷ-1-2〉.

반일제 학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순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전체비용은 평균 434,300원이었다. 기관유형에 따라 나누어보면 대표적인 반일제 학원인 영어학원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평균 587,100원으로 기타 유형의 반일제 기관의 비용보다 약 345,3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반일제 학원 월평균 지불비용

단위: 천 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 비용 비율
전체	434.3	354.4	79.9	(41)	9.3
기관유형					
영어학원	587.1	511.2	75.9	(23)	11.8
기타	241.8	156.9	84.9	(18)	6.1
2012년	788.3	640.8	147.5	(112)	13.4

주: 보육료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29 〈표 Ⅷ-3-1〉.

유치원과 어린이집 외 반일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역시 영어(15.2%)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한글(14.4%), 체육(12.5%), 미술(1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9 반일제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비율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11.9	7.3	12.5	6.0	9.1	14.4	-	2.6	3.7	15.2	-	2.1
보육연령												
1세	-	-	-	-	-	-	-	-	-	-	-	-
2세	36.7	8.6	36.7	36.7	8.6	8.6	-	6.0	-	8.6	-	-
3세	22.9	5.8	17.2	4.1	9.9	5.8	-	5.8	5.8	32.9	-	-
4세	-	15.2	2.3	-	15.2	4.4	-	-	-	19.3	-	10.8
5세	-	4.5	5.8	-	5.8	32.6	-	-	5.8	-	-	-
기관유형												
영어학원	11.7	10.9	11.9	8.6	13.9	23.2	-	4.5	6.4	6.9	-	3.7
기타	12.2	2.6	13.2	2.6	2.6	2.6	-	-	-	26.4	-	-
(수)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2012년	35.4	38.3	63.8	15.2	13.0	45.7	-	30.4	2.1	39.6	-	2.1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324-325 〈표 Ⅷ-2-6〉.

반일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알아본 결과, 기타(120,000원)를 제외하고 영어는 73,200원, 과학은 70,800원, 교구 62,600원, 체육 60,500원, 미술 60,000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고가인 경우는 150,000원까지도 받았으며, 최소 10,000원인 기관도 있어 기관마다 편차가 큰 편이었다.

표 Ⅱ-2-10 반일제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지불비용

단위: 천 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평균)	60.0	32.3	60.5	70.8	44.6	48.6	-	62.6	30.0	73.2	-	120.0
표준편차	25.1	15.3	20.6	19.1	37.7	14.6	-	90.8	-	46.3	-	-
최소	35.0	12.5	10.0	50.0	12.5	12.5	-	25.0	30.0	10.0	-	120.0
최대	120.0	50.0	80.0	100.0	100.0	80.0	-	150.0	30.0	150.0	-	120.0
보육연령												
1세	-	-	-	-	-	-	-	-	-	-	-	-
2세	62.8	50.0	67.5	62.8	100.0	80.0	-	150.0	-	100.0	-	-
3세	58.1	25.0	50.6	100.0	53.3	-	-	25.0	-	59.0	-	-
4세	-	21.4	25.0	-	17.8	12.5	-	-	-	104.3	-	120.0
5세	-	50.0	80.0	-	40.0	48.2	-	-	30.0	-	-	-
기관유형												
영어학원	68.4	29.2	72.9	75.4	36.9	45.6	-	62.6	30.0	26.2	-	120.0
기타	49.1	50.0	45.6	50.0	100.0	80	-	-	-	89.7	-	-
(수)	(6)	(5)	(7)	(3)	(6)	(5)	-	(2)	(2)	(8)	-	(1)
2012년	57.7	42.1	35.3	29.4	27.2	32.7	-	40.0	35.0	57.6	-	30.0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326-327 〈표 Ⅷ-2-9〉.

라.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현황

다음은 영유아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니는 시간제 교육의 유형별 이용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원 형태의 기관을 다니는 경우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서로 학습지(14.1%)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학원과 학습지 등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Ⅱ-2-1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비율

단위: %(명)

구분	시간제 학원	학습지	예체능 개별지도	교재교구 개별 교육	통신 교육	(수)
전체	17.5	14.1	1.4	2.1	0.2	(3,560)
영유아구분	·	·	·	·	·	·
영아	6.7	3.1	0.1	1.5	0.1	(1,625)
유아	24.0	20.6	2.3	2.5	0.3	(1,935)
생활연령	·	·	·	·	·	·
0세	3.6	0.2	-	0.7	-	(539)
1세	9.1	2.7	-	1.2	-	(518)
2세	6.6	5.1	0.2	2.2	0.3	(568)
3세	8.5	13.2	0.9	3.0	0.2	(568)
4세	19.4	18.8	3.6	2.0	0.8	(534)
5세 이상	36.7	26.5	2.4	2.5	0.1	(833)
2012년	20.4	30.5	0.7	4.0	0.1	(3,343)
2009년	47.9	-	-	-	-	(4,637)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4 〈표 X-1-1〉.

시간제 학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는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28.1%), 음악(13.6%) 학원도 많이 다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어학원의 경우, 이용비율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2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단위: %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28.1	13.6	53.0	1.4	8.0	9.2	0.1	6.6	1.9	7.5	1.2	12.2
영유아구분	·	·	·	·	·	·	·	·	·	·	·	·
영아	8.8	9.5	33.1	0.5	1.7	10.1	-	21.9	-	3.5	-	28.1
유아	31.4	14.3	56.3	1.6	9.0	9.0	0.1	4.0	2.3	8.2	1.4	9.5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생활연령												
0세	-	14.9	-	-	5.9	5.9	-	55.9	-	5.9	-	29.2
1세	-	4.0	48.5	-	2.0	-	-	19.4	-	-	-	30.4
2세	20.7	13.7	27.3	1.1	-	22.0	-	14.0	-	6.3	-	25.2
3세	29.5	14.3	33.1	2.8	13.7	24.0	-	16.3	0.9	6.7	5.2	3.0
4세	35.5	12.1	51.2	1.3	8.5	10.1	-	6.5	0.9	6.7	-	17.0
5세 이상	30.3	15.0	61.4	1.5	8.5	6.4	0.1	1.4	2.9	8.9	1.2	8.1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7 〈표 X-2-2〉.

시간제 학원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어에 대해 부모들은 가장 높은 비용(평균 119,2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평균 92,300원)과 과학(평균 88,200원), 음악(평균 81,600원) 등도 높은 수준이었으나, 10만원을 넘지 않았다. 특히, 영어학원은 기관별로 편차가 가장 큰 과목으로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영아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세 유아가 다니는 영어학원 비용은 평균 137,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Ⅱ-2-13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월평균 지불비용

단위: 천 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평균)	74.5	81.6	92.3	88.2	76.5	62.3	20.0	66.8	45.5	119.2	54.7	64.5
표준편차	37.6	34.1	41.0	43.8	47.1	47.2	0.0	40.6	29.6	84.3	26.8	44.7
영유아구분												
영아	79.0	42.4	66.8	40.0	43.9	34.5	-	59.4	-	87.2	-	53.6
유아	74.3	86.0	94.8	90.5	77.5	67.5	20.0	73.5	45.5	121.4	54.7	69.8
생활연령												
0세	-	36.6	-	-	60.0	50.0	-	51.3	-	50.0	-	86.5
1세	-	31.8	46.9	-	30.0	-	-	60.9	-	-	-	60.4
2세	79.0	47.5	103.5	40.0	-	33.3	-	67.2	-	98.0	-	33.5
3세	58.5	42.7	80.1	97.2	66.8	62.4	-	72.6	33.0	56.1	35.6	40.0
4세	63.9	98.3	85.4	128.6	72.7	94.7	-	93.9	30.0	86.6	-	53.0
5세	80.6	88.8	98.4	78.3	81.5	56.5	20.0	45.3	47.6	137.0	66.6	82.9
(수)	(150)	(83)	(238)	(12)	(47)	(48)	(1)	(39)	(7)	(37)	(4)	(54)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9 〈표 X-2-4〉.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주당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 일주일에 1.4~3.6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는 주당 2.5시간 다니고 있었다.

표 Ⅱ-2-14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주당 이용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평균	2.4	2.9	3.1	2.1	2.0	1.6	2.0	1.5	1.4	2.5	3.6	1.9
(표준편차)	(1.8)	(1.9)	(2.0)	(1.8)	(1.7)	(1.2)	-	(1.2)	(0.8)	(1.6)	(1.8)	(1.4)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372-373, 〈표 Ⅹ-2-8〉.

3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취학전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 혹은 영유아 영어교육 등의 명칭으로 효과성과 폐해,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과 부모들의 인식과 실태,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어왔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목적으로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1) 취학전 영어교육의 효과성 관련 연구, 2)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학전 영어교육의 효과성 관련 연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찬반논쟁이 있었지만, 취학전 영어교육이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김민진, 2012). 특히,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취학전 영어교육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았으며(김근영·김유리·박혜경·김가희, 2016; 마송희, 2003; 황혜신, 2004; 홍채연·허근, 2013), 취학전 영어교육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는 거의 없다.

1) 취학전 영어교육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취학전 영어교육의 효과성은 주로 영유아의 영어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모국어와 외국어인 영어 능력, 상위 언어능력 등에 대해 연구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외국어로서의 취학전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영유아 시기가 모국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임을 근거로 둔다(우남희, 2007). 특히, 서유헌의 뇌 발달과 영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2002)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발달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는 6세~12세이므로 6세 이후에 국어 및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취학전 외국어교육은 유아들에게 학습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오히려 언어발달 및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한다(신동주, 2007에서 재인용). 조기 영어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은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 가설을 근거로 조기 영어교육의 높은 효과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주로 제1언어 습득에 관련된 것이며 이를 외국어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있다(전예화, 2003).

두 번째로 취학전 영어교육과 단기 영어 능력과의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김근영·김유리·박혜경·김가희, 2016; 마송희, 2003; 황혜신, 2004; 홍채연·허근, 2013). 김근영 외의 연구(2016)에서는 평균연령 35.3개월(3차까지 모두 참여한 대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한국어 능력, 지능, 성격 변인,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영어교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제하여 약 8개월 동안의 영어학습만의 고유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어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영어 수용능력과 표현능력 모두 가파르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기 영어학습은 최소한 단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근영 외, 2016).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은 영어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영어학원에 다닌 유아들보다는 영어 동화책을 읽은 유아들의 영어 어휘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송희, 2003).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일반 어린이집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황혜신(2004)의 연구에서도 역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보다 영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전 영어교육은 영어능력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오감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10주 동안 받은 어린이집 5세 유아는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채연·허근, 2013).

하지만 김근영 등(2016)이 지적했듯이, 단기간 언어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유아 시기 영어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국내 종단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영어를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조기 영어교육 (단기) 효과에만 집중한다. 영어 조기교육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다(이경호·김익균, 2007; 이귀옥·우남희, 2008; 우남희·이종희, 1996; 신동주, 2007; 전예화, 2003).

이귀옥과 우남희(2008), 전예화(2003)는 공통적으로 외국어교육 전 모국어 능력을 충분히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의 모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수준이 높았으며, 모국어를 잘 하는 유아가 영어학습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귀옥·우남희, 2008)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이외의 환경에서는 영어 사용이 제한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영유아기부터 영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신동주, 2007).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양의 외국어 학습에 있어 영유아보다 성인이 훨씬 빠르게 습득한다는 주장은 이미 일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송순재, 1997; 이정림·배윤진·조혜주·송요현·고성룡·이정희, 2015). 즉, 모국어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영유아기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전 영어교육이 상위 언어능력(meta-linguistic ability)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한유미·조복희, 1999; 신귀련·조희숙, 2002; 마송희, 2003), 이들 연구의 결과는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 신귀련과 조희숙의 연구(2002)에서는 아동의 상위 언어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의 연령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능력, 영어교육 경험 정도, 그리고 지능 순으

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경험 정도 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모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상위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신귀련·조희숙, 2002)는 취학전 영어교육을 지양하는 주장을 지지한다. 반면, 한유미와 조복희의 연구(1999)에서는 상위 언어능력은 약간의 외국어 학습 경험에 의해서 촉진되었고, 마송희(2003) 역시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은 유아의 상위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2) 취학전 영어교육과 언어능력 이외 다양한 발달과의 관계

학계에서는 취학전 영어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이외 아동 발달의 다양한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우남희, 2007; 하연희·천희연, 2005; 최지영, 2008; 김민진, 2012).

우남희의 연구(2007)에서는 영어교육 시간이 가장 많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아들의 창의력 점수가 다른 그룹의 유아들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사회언어학적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김민진, 2012)에서는 영어학원 재원 기간에 따라 수업참여 방식, 말차례 지키기 등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영어학원에 오래 다닌 유아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실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초등학교 적응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김민진,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취학전 영어교육은 단순히 언어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주고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김민진, 2012).

이와 다르게 영유아기 영어교육 경험은 사회정서 발달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하연희·천희연, 2005; 최지영, 2008). 하연희와 천희연(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어교육 시작연령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안전성, 협조성, 예민성 네 개 하위차원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지영(2008)의 6개월간의 단기 실험연구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의 실시여부와 5세 유아의 자아개념 6개 하위요소(학문적, 신체적, 운동적, 사회적, 행동적, 민족적 자아)는 관계가 없었다.

나.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취학전 영어교육은 대상자인 영유아보다는 교육소비자인 부모와 교육제공자로서의 원장 및 교사의 인식이 실제 현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교육 현장전문가인 교사와 원장의 인식을 살펴보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영유아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인 부모의 요구는 원아모집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송미선·박현주·김정준, 2011). 취학전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뜨거운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김은아, 1995; 김정오·허만임·김혜정, 2014; 반경하·서현아, 2009; 이현주·정영숙·장혜자, 2004; 장복명·임원신, 1999; 한유미·이진화, 1997)하고 있었다. 취학전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성장 후 영어는 꼭 필요하므로(김정오·허만임·김혜정, 2014; 김혜미, 2017),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경쟁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이석금·이진희, 2015), 입시를 겪거나 직업을 선택해야 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김혜미, 2017),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한유미·이진화, 1997)이라고 인식하였다.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김혜미의 연구(2017)에서는 7세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이현주 등(2004)은 유아기를 꼽았고, 장복명·임원신(1999)의 연구에서는 5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라 보았다. 2018년 현재 공교육 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과정에 영어가 포함되지만, 부모들은 공교육에서보다는 빨리 영어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간단한 문장 말하기나 듣기 등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기, 손 유희, 게임, 노래 등을 통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방법을 선호하였다(이현주 외, 2004).

지금까지의 살펴본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세계 제1의 공용어인 영어에 대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배워서 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현주 외, 2004; 김정오·허만임·김혜정, 2014).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은 반면,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안영애, 2006).

부모세대들이 경험한 사회는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에 따라 대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아이들이 영어를 노래와 게임으로 배우며 즐거워한다고 인식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유치원[2]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영어특성화유치원[3]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이석금과 이진희(2015)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일반유치원 영어수업은 유아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모를 의식하여 프로그램의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았고, 영어특성화유치원의 영어수업은 무리한 암기 위주의 수업으로 유아의 발달에 부적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취학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는 많은 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 영어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2)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제 현장 속 대다수의 교사들은 취학전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지만(김경철·홍정선, 2002; 장복명·임원신, 1999; 이현주 외, 2004; 김근혜·홍순옥·탁장환, 2014),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나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유아가 흥미를 보여서라는 답변도 있지만(김근혜·홍순옥·탁장환, 2014), 학부모 혹은 원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김근혜·홍순옥·탁장환, 2014; 장복명·임원신, 1999; 전홍주, 2009). 특히,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과 기존 원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전홍주, 2009; 김민화·유연옥, 2012).

영어수업을 일과 중 포함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장복명과 임원신(1999)의 연

2) 영어교육을 방과후수업으로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실시하는 유치원

구에서는 교육방법, 교사, 교재교구, 교육내용 순으로 응답하였고, 이현주, 정영숙과 장혜자의 연구(2004)에서 원장은 교사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재·교구 선정, 교육내용 선정 순으로 답했고, 교사는 교육방법 선정, 교사 선정, 교재·교구 선정, 교육내용 선정 순으로 응답했다. 즉, 원장은 운영자 입장에서 적합한 자질의 교사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교사는 공통적으로 영어교육 시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유아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영어담당 교사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전홍주, 2009).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적 필요성, 그리고 영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판단보다 부모가 나타내는 당장의 요구가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국외 연구

가. 유아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가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혹은 해로운가? 라는 질문은 최근 들어 새로 등장한 이슈는 아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중언어에 관한 연구가 지난 세기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기(1960년대 이전)의 이중언어 관련 연구의 경향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결함적 관점(deficit perspectives)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Jensen(1962)의 이중언어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중언어(bilingual)는 언어 지체와 관련이 있고 위험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견해의 저변에는 유아의 언어습득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이중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결국 언어발달을 망친다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Cummins(1976), Peal과 Lambert(1962)는 당시의 연구들이 표집에서의 문제점, 성으로 이중언어 사용자를 구분한 점, 지능검사에 기초해 연구한 점 등 연구 설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Peal과 Lambert(1962)의 연

구는 유사(pseudo)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균형 잡힌(balanced)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후 Ianco-Worrall(1972)의 연구는 모어와 제2언어의 의미론적 관련성, Ben-Zeev(1977)는 언어의 규칙과 구조에 대한 월등한 인식, Cummins(1978)는 메타언어적 인식에 있어서 이중언어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Peal과 Lambert(1962)의 연구성과를 계승했다. Wong Fillmore(1976)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미국에서 영어를 모어가 아닌 제2언어로 배우는 아이들이 보다 특별한 사회적, 인지적 책략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책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어의 발달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중언어에 대한 1960~7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중언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다루어진 이중언어가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다루어진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제2언어라 함은 주류사회의 언어(L2, Second Language)가 모어(L1, Mother Tongue)와 다를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에게는 영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L1과 다른 L2, 즉 제2언어가 될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주류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에서의 영어는 제2언어가 아닌 그냥 외국어일 뿐이다. 이중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이처럼 외국어와 제2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사회의 언어적,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는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꼭 받아야만 하는 교육이다. 즉 이중언어가 아닌 단일언어가 강조된다고 한다면, 영어가 아닌 그들의 모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즉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배우던 언어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들 가정에서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것이 유아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경향 역시 그러한 총체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은 같은 이중언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언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적인 맥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훨씬 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어 이중언어 교육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이고 잘 고안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외국어 불안(Foreign Language Anxiety)

학습에 있어서 정서 및 심리적인 요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 불안(anxiety)은 언어학자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언어 습득이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Horwitz, Horwitz와 Cope(1986)의 외국어 교실에서의 불안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안의 정도(fear level)가 언어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가 유아기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Horwitz(2000)는 외국어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모어 수준을 꼽았다. 즉, 모어 능력이 낮은 경우 외국어 불안이 높고 이는 결국 외국어 습득이나 학습을 방해하기에, 결국 모어 능력이 낮으면 외국어를 배우기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아기는 어휘가 매우 왕성하게 늘어나는 시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어휘가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언어적인 자극이 제한되고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일정 기간 모어의 발달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언어인 외국어 발달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이 일어나는 교실에서의 불안을 다루었는데 먼저 Price(1991)의 연구는 스스로 극심한 외국어 학습 불안이 있다고 밝힌 학생 10명을 연구하여 일부 학생은 외국어 교사와의 좋지 않은 상호작용으로 학습 불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Koch와 Terrell(1991)의 연구는 FLA 즉 외국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안했던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을 사용했음에도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 환경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Horwitz(1996)는 외국어 교사의 외국어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모어가 아닌 언어를 가르치는 상당수의 교사들 역시 학생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 등에

두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결국 학생들의 불안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외국어 학습의 과정이 특별한 교수법을 사용한 경우(Koch & Terrell, 1991)에도 교사의 문제(Horwitz, 1996; Price, 1991)로 인해 외국어 불안이 외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ohen과 Norst(1989)의 연구는 외국어 학습 과목이 다른 과목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유에 대해 언어는 자아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지적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즉,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지만 언어 학습에서의 문제는 단지 학습 내용(외국어)뿐 아니라 정서 및 자존감, 자아정체성 등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외국어교육은 유아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다른 학습과 달리 정서적인 문제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외국어교육으로 학습에 문제를 겪은 경우는 다른 학습문제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유아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역시 이런 점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유아를 위한 외국어 교사훈련과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특히 언어발달이 민감한 영유아기에는 각별히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민감하게 살피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유아기 외국어교육의 효과

이중언어의 시작 연령에 관한 관심은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어왔으나 앞서 이중언어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연령이 적기라고 밝혀진 바는 없으며 연구자의 관심과 ESL, EFL 등 학습자의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 Bot(2014)은 외국어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8년간 끊임없이 배워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지어 영어가 주류언어인 미국에서도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학습에 필요한 영어 기술을 완전히 익히

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아기 외국어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하지 않으면 외국어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II

국민참여 워크숍

1. 문제점 발견
2. 개선점 찾기
3. 아이디어 발전
4. 개선점 구체화
5. 결과 도출

Ⅲ. 국민참여 워크숍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을 강조하여 정책 발굴, 계획, 수립, 평가의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영유아 적기교육 관련 국민참여 워크숍은 총 5회 개최하였으며, 문제점 발견(discover), 개선점 찾기(define), 아이디어 발전(develop), 개선점 구체화(design develop), 결과 도출(deliver)의 5개 단계로 추진되었다. 각 단계별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발견

국민참여 워크숍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은 '우리아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발견된 문제점

내용	세부 내용
왜!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학습보다는 놀이의 개념 • 영어에 노출시켜 친근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 언어는 학습적 관점(Learning)보다 습득의 관점(Acquisition)으로 접근 • 풍부한 언어적 자극(Input)이 언어습득을 도움 • 노래, 영화, 연극, 혹은 역할극, 놀이, 등등.... 심지어 요리, 미술, 체육까지도 "영어" base로 모두 가능 •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영어 교육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 개발의 필요성 (아동학, 유아교육, 영어교육 등 전문가들의 협업)
사교육으로라도 할 거예요.	더 많은 비용 지불_빈부격차, 검증되지 않은 강사 및 교재 • 빈부격차에 의한 영어 습득, 저소득층 영어 학습 기회 박탈

내용	세부 내용
	• 더 많은 비용_검증되지 않은 교재와 강사(성범죄 우려) •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 • 우리 애만 잘하게 할 수 있는 기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영어는 국가 경쟁력 •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영어가 누리는 권력 여전함. • 우리사회의 영어에 대한 절대 권력 - 사회적 명예, 부를 얻는데 도움 - 학업적인 면에서 경쟁력 상승 - 취업이나 승진에 영어 실력 필수 • 유창한 영어능력을 원한다면 모국어부터 탄탄히!
왜! 영어만 금지?	영어 놀이는 학습이 아니에요. • 유아시기에 놀이와 함께하는 영어는 학습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음. • 영어를 학습적 관점의 Learning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습득의 관점인 Acquisition으로 보아야 함. • 풍부한 언어적 자극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됨. •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활동에 영어를 접목하여 진행하면 오히려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음.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조기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해요. • 조기영어교육이 불필요한 이유와 또는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설득이 필요함. •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영어교육 적기”에 대해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음. •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하기에는 학습량이 너무 많음. • 유창한 영어실력은 아이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게 걱정되고 두려움.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부재	정부가 바뀌면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국민은 혼란스러워요. •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가 책임감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 교육정책을 내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가중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없음.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몇 년간의 실질적인 추적 데이터가 필요함 . • 수능 영어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버거움. • 확실한 근거 없이 공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 빈부의 격차와 상대적 교육의 박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교사 등 관계자들이 충분히 회의와 분석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야 함.

영유아기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제2언어인 영어교육은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후 이루어져도 늦지 않으며, 영유아기 영어는 가정에서 어렵지 않은 영어동요나 그림책을 통해 접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영어도 놀이를 통해 교육할 수 있고, 방과후 영어교육보다는 영어학원 금지가 우선이며, 이 중에서도 영어 몰입식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 어릴 때부터 해야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2 개선점 찾기

개선점 찾기 단계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였다. 국민들은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영어교육의 적기를 정확히 알려 주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일관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은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내용	세부 내용
왜!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이 문제를 야기하였고 놀이=공부라는 전제 하에 정책이 결정되고 유아에 맞는 연령별 교육을 실시하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초3이전에는 놀이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후에 학습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 실시 • 유치원 본질에 맞도록 누리과정을 놀이중심의 과정이 되도록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 •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놀이' 개념 정의부터 시작이 필요 • EQ개발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율성 • 어학은 다른 과목과 달라서 놀이로 충분히 습득 시킬 수 있음. 정부에서 '쉼'을 강조해서 "영어는 공부라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유아기 영어는 공부라고 하기 어려움. • 정부 정책에서 "쉼"을 중히 여긴다면 유아기 "영어 쓰기 금지" 교육 정도면 될 것 •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끌어내며 자극 주는 방법으로 영어 습득! • 영어는 언어.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님! • 방과후는 학습보다는 보육의 역할. 굳이 영어를 금지하는 것 의미 없음. 음악, 미술, 방과후를 선택하는 것처럼 영어 수업도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
사교육으로라도 할 거예요.	• 현재 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고 자료 공개 필요 • 공교육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즐거운 수업'과 '수준 높은 선생님'이 필요함. 실제 영어를 못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고 발음이나 어휘력 구사력이 오히려 아이들보다 부족한 교사들도 존재 •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영어선생님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고 공교육에 배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편타당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 •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 얻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 • 사교육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가 아닌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많은 시간 동안 몰입식 교육 실시 • 가정에서 엄마나 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채널을 만들고 풍부한 콘텐츠 제공(영상, 무료교재, 놀이방법 등) • 현재 유아대상학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 영유아기 영어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잘 키워낸 실례들로 설득 & 신뢰감 유도 • 영어 정책만으로 접근 말고, 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접근해야 영어 사교육 문제도 해결 가능

내용	세부 내용
	• 사교육을 금지하기 보다는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뛰어넘을 내실 쌓기! •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할 필요 있음(여러 아이들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영유아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초3 이후에 실시하려고 한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 • 글로벌 경쟁력은 발음보다는 실질적인 콘텐츠나 어휘력 구사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 제안 • EBS 유아영어채널을 신설하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더빙 없이 자막으로 영어방송이 나오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듣기에 익숙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인재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 생각하는 힘, 인성, 협업에 대해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글로벌 경쟁력은 발음 보다는 내용! • 방과후 영어를 금지 한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되지는 않을 것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면 함. 선택이 가능한 교육서비스 제공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은 영어가 아닌 생각하는 힘, 인성. • 그동안의 교육정책에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아님. 교육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 집체 교육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문화센터(수영 강습)와 같은 단계로 구분해서 익혀야 함 • 영어와 중국어는 경쟁력 있는 언어. 국가 경쟁력이 있기 위하여 모국어·영어·중국어는 공교육에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함.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 언론을 통해 정확히 '영유아 적기교육'이 무엇인지를 발표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커리큘럼 제시 •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은 제1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초등 3학년의 교육과정에 시작해도 늦지 않음을 강조하고 성공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 • 평균적인 영어교육의 적기라면 초등학교 3학년 공교육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음. •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및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초 3학년 때의 영어 적기교육에 대한 4~7세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며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체될 만한 학교 커리큘럼 개발하여 실시 • '언제 외국어(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음. 그럼에도 굳이 "시기"를 특정 하자면 모국어를 거의 마스터한 직후, 나이로는 만 10세 • 영어교육의 적기는 개인(부모)이 원하는 때에 국가는 교육서비스 공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 • 6~12세에 측두엽 발달 (언어의 뇌 상승), 모국어가 형성되는 4~6세 정도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 영어공부(접근) 가능하다 생각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부재	• 교육과 문화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이용 • 유아교육의 미래적인 공교육 개발 • IQ개발과 EQ개발의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제시 •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관리하는 산하조직의 일원화 필요 • 교육부장관이 정부에 의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정책이 일관성의 부재를 가져오므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신설된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음 • 몰입식 교육이 아닌 영유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교육화가 급선무이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금지는 반발심을 키우므로 영어 공교육에 대한 큰 그림의 제안이 필요

내용	세부 내용
	• 일방적인 불통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관점을 바꾸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 모든 정책의 핵심은 입시와 취업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시에 대한 유연성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권한 축소 • 중고등학생 또는 상위 대학생들에게 영유아시기에 얼마만큼의 영어교육에 몰입하고 노출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영어 수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리서치와 분석통계자료 작성하여 국민에게 배포 • 초·중고등을 관통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 공감과 신뢰 얻기 •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정책 일관성보다는 아이의 단계에 걸맞은 단계를 해야 함.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와 시기의 문제임. “테스트에 의한 단계별 학습” • 교육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학부모들은 불안함.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도 국토개발이나 다른 정책처럼 교육 10년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음. 고교 영어 내신만 절대평가하지 말고 중학교 교육과정도 손 볼 필요가 있음(예: 중고 내신도 절대 평가하는 형식으로). • 국가교육은 기본 소양교육이라면 기본 장기계획에 반영 • 기본틀을 바꾸지 말고 내용과 콘텐츠 보완 • 그동안 영어교육의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제시. 개선안 도출 •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함.

3 아이디어 발전

아이디어 발전 단계에서는 청소년 대상 워크숍을 통해 영유아기 교육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적기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청소년들은 영어를 포함한 유아기의 학습이 재미가 없고 싫었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놀았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방과후 영어교육이 부모의 불안을 일부 잠재울 수는 있으나 그다지 효과는 없으며, 일부 유아를 제외하고 다른 활동보다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문가는 영유아기에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대신하여 지나친 조기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영유아의 뇌를 지치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4 개선점 구체화

개선점 구체화 단계에서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증진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적기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의 거부 반응 지점과 설득 지점을 찾았다. 학부모들은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고, 평등한 교육기회, 저렴한 비용 등을 들어 방과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고, 적기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4-1〉과 같다.

표 Ⅲ-4-1 거부 반응과 설득 포인트

구분	내용	세부 내용
거부 반응 지점	확실한 대안이 없음	• 적기교육에 대한 다수의 이론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이론을 선택하여 어떻게 운영할 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영어교육만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혼란과 교육 공백기만을 조성 • 금지해도 부모들이 조기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평등한 교육 기회	• 공교육은 공공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맞음. 최소한의 환경을 제한하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
	방과후 영어 수준	• 방과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
	비용	• 도서 구입 비용이 비싸며, 방과후 다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 (도서관, 상호 대차를 통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설득 지점	미래 인적 자원 양성 방향 제시	• "인적자원"이 귀중하며 그러한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제대로 된 방향성 제시 • 여가부와 협력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부모교육 실시 • 영어교육 광풍이나 효율성 없는 거품에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함. • 국가가 시류에 편성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용인해선 안 됨. 실효성, 정당성 면에서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금지가 정답
	적기 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사례발표 • 아이에게 "감성"이 가장 발달할 시기에 영어교육보다는 감성을 키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 •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할 수 있는 탐구 탐색에 관한 교육과 놀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영유아기 때 1~2년 학습이 초등 3~4학년 한두 달 학습과 같으므로(별로 차이 없다), 유아기부터 과도하게 교육시킬 필요 없음.

5 결과 도출

결과 도출 단계에서는 홍보자료를 어떻게 제작하면 학부모의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5회의 국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한 후 적기교육의 중요성과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전개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기교육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자료에 담을 내용은 〈표 Ⅲ-5-1〉과 같다.

표 Ⅲ-5-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

내용	세부 내용
교육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적기교육 • "자녀 교육의 가치관"을 제시. 자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단지 공부 잘 해서 성공한 아이? 마음과 신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 우리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방법 찾기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아이를 똑같은 아이로 키울 것인가)
데이터 분석 및 사례 제시	• 영유아기 영어교육의 불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 및 설득 • 영어유치원 출신자들의 수능영역점수 추적 데이터 vs. 일반유치원, 어린이집 출신자들의 수능영역점수(영유아 영어의 효율성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 소비자가 판단하게 함) • 영유아기 영어교육과 성인의 영어실력과 상관없다는 것을 제시 (나이 40에 영어 배우기 시작해서, 통역 없이 영어 대화 가능한 김대중 대통령 사례) • 영어 방과후, 몰입하지 않는 심도 있는 한국어 수업을 하는 유치원과 원생·학부모 만족도
적기교육 콘텐츠	• 공교육에서 영어 친화 환경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없이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가능을 확신시켜 줌 • 단순 Speaking 실력 보다는 Communication 능력 배양이 중요 • 영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제시하기 •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교육의 적기인 이유와 공교육 철학과 일관성 제시 • 적기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개발과 채널 제공
미래 인재상 제시	• 미래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구체적 제시 •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려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그에 따른 필요 교육 제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Ⅳ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1. 시나리오 구성
2. 시나리오 전개
3. 홍보자료 제작
4. 홍보자료 활용

Ⅳ.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로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선행연구 분석과 국민참여 워크숍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작하였다. 카드뉴스는 동영상 내용 중 핵심 장면을 추출하여 영상 스틸컷으로 제작하였다.

1 시나리오 구성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 제작을 위하여 시나리오 회의를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자료와 국민워크숍 결과에 기초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회의에서 도출된 예상 시나리오는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시나리오 구성안)

내용	세부 내용
도입	• 영유아기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배움의 적기가 있다! - 배움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
전개: 실증자료 제시	•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국내외) - 세계의 유치원: 정서와 오감발달에 집중 - 이스라엘: 유치원 의무교육, 초등교육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법 - 독일 취학통지서: '귀댁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유치원교육: 조기교육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호기심과 맞바꾼 조기교육 • 미래 사회의 귀중한 자원-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 세상: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인재상이 요구될까요? 미래 예측기관들에서 얘기하는 미래 인재상 • 발달시기에 따른 교육 로드맵(한 장의 프로세스로 표현)에서 영유아기 - 아이는 이렇게 성장한다.

내용	세부 내용
핵심: 적기교육 콘텐츠	• 영유아기 적기교육은 무엇인지? - 긍정적 자아개념 심어주기 - 초등 입학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놀이학습법 최대한 활용하자 • 적기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향후 성적을 올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 유아기 적기교육은 인성교육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 아이가 자라는 시대의 키워드는 공감능력 • 행복한 아이가 세상에 나가 성공한다. • 뇌 발달에 따른 영유아 적기교육: 4~6세 창의력이 왕성해지는 시기, 땀 흘리는 운동이 두뇌를 깨어나게 한다. 다중지능
마무리: 미래 인재상 제시	• 내 아이의 소중한 영유아기! 바로 지금! 부모님께서는 어떤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or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2 시나리오 전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시나리오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지금 내 아이는?', '너무 불안해요.', '영유아기 적기교육은?', '새로운 세상, 사람이 중요한 시대', '미래의 귀중한 자원, 우리아이, 지금 필요한 적기교육은?', '적기교육이 필요한 소중한 시간: 호기심과 맞바꾼 부모의 불안감'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각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 내용(시나리오 전개안)

내용	세부 내용
지금 내 아이는?	• 영유아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 아이(연령별 학습 제시) • 학습으로 구성된 하루 일과표
너무 불안해요.	•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불안함. - 다른 아이와 비교하여 뒤쳐지지 않기를 바람.
영유아기 적기교육은?	• 이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꼭 필요한 교육은? • 다양한 해외 사례: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의 교육 • 적기교육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이른 시기에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빼앗김. • 행복한 아이가 세상에 나가 성공함. • 뇌 발달에 따른 영유아 적기교육: 4~6세 창의력이 왕성해지는 시기, 땀 흘리는 운동이 두뇌를 깨어나게 함. 다중지능
새로운 세상, 사람이 중요한 시대	•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요구하는 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사회성, 공감능력, 유연함 등

내용	세부 내용
미래의 귀중한 자원, 우리 아이, 지금 필요한 적기교육은?	• 감성지능, 인간관리능력, 인지적 유연성, 복잡한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 • 행복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 몰입 가능 → 학습효과 극대화 • 영유아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발전시키도록 함. • 영유아기에는 직접 체험과 신체활동이 중요함.
호기심과 맞바꾼 부모의 불안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 부모의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영유아의 호기심을 키우기보다 영유아기에 맞지 않는 학습에 집중하는 상황 • 행복하게 놀이를 통해 세상을 알아나가는 모습들 •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 던지기

3 홍보자료 제작

시나리오 구성과 전개 내용에 따라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다. 동영상 제작에 앞서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슬라이드 형태로 정리하였고, 연구진과 교육부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수정하였다.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적기교육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인터뷰, 유치원과 어린이집 활동 등을 촬영하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1차 제작된 자료는 연구진 시사회와 교육부 담당자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동영상 자료는 5분 정도로 제작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스틸컷으로 구성하여 28페이지 슬라이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4].

4 홍보자료 활용

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동영상과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관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교육 시 홍보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과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홍보자료를 탑재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최종 홍보자료는 「이기숙(2015). 적기교육, 서울: 글담출판」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제작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
2. 정책 방안

V.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

본 연구는 영유아기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시작된 연구이지만, 연구를 추진하면서 조기교육이나 영어교육 금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유아기 적기교육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정책 방향 또한 무엇인가를 규제하고 제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영어교육을 포함한 과도한 조기교육은 대부분 내 아이가 또래에게 뒤처질까 하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불안감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영유아기부터 학습을 강요당하고 행복을 빼앗기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행복한 영유아기를 통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유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한다. 방과후나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이 시간에 쫓겨 무엇을 하기보다는 마음껏 놀고 편히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조금은 심심하게 보내면서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은 영유아들이 미래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정책 방안

이상의 정책 방향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특성, 영유아 적기교육,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널리 보급하고, 각 부처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와 불안감을 해소하며,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적기교육에 대한 TV나 라디오 홍보, 적기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 지역사회에서의 부모 대상 교육 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어린 자녀를 학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최선의 적기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적기교육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유아 대상 학원이 학습을 위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유아 대상 학원 중 유아들이 3시간 이상 머무는 기관은 프로그램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유아들이 책상과 의자 중심 세팅의 환경에서 반나절 이상 학습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실이 유아기에 꼭 필요한 경험을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유아들이 영아기부터의 훈련을 통해 책상과 의자에 장기간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것이 자녀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체제가 아닌 공교육과 공보육의 보완재로서 방과후에 유아의 적성에 따라 한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학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방과후과정과 프로그램 모두 놀이 중심으로 편성하여 영유아의 자율성, 호기심,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한다. 자

녀를 위한 학부모의 요구는 지속될 것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되 영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기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한다. 더불어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적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를 참여시키고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신나는 놀이 중심의 적기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몰입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부모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넷째, 취학 전에 마음껏 놀아도 초등학교 입학 시 적응에 무리가 없도록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초등교육과정을 정비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초부터 가르치되 각 학생의 수준과 특성, 적성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이나 기초부터 시작하는 초등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모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학습을 시작하니, 유아기에는 오히려 마음껏 노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훨씬 더 유익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초·중등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큰 그림과 학년별 로드맵을 제시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영어교육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전달해야 한다. 영유아기에 1~2년 걸리는 목표가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면 한두 달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적기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며, 이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영유아기에 놀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몰입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바탕이 되어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안정화를 통해 부모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시켜 사회로 내보내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다. 그러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바뀐 정책이 언제까지 갈지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결국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막연한 미래를 위해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한 곳에 목표를 두고 모든 아이들이 달려가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가 저마다의 적성을 살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직업간 급여 편차를 최소화하여 부모들이 자녀에게 소위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모가 가지는 불안감은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부모라도 영유아기 자녀를 조기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책상과 의자에 장시간 동안 묶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적기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하며, 영유아가 소속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종일 신나는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영식·마지순·안라리(2013).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와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89-202.

고여훈·엄정애(2010).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31(4), 75-90.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경철·홍정선(2002).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어린이미디어연구, 1, 33-51.

김근영·김유리·박혜경·김가희(2016). 조기영어학습이 유아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 성격, 부모요인을 통제한 전향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552-562.

김근혜·홍순옥·탁장환(2014).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5, 97-116.

김민진(2012).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유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5), 459-486.

김민화·유연옥(201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영어교육의 문제점. 사회과학논총, 31(2), 117-133.

김영아·신혜영(2007).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 및 관련 변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945-955.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아(1995).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김근진·윤지연·김민지·Chiu Chih Peng·정광희·Sajaniemi Nina Kristiina (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김정오·허만임·김혜정(2014).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2(1), 193-197.

김혜미(2017).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영어교육 방법. 영미어문학, 126, 171-193.

김호·유영희(2011). 유아의 놀이성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 과정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333-352

마송희(2003). 유아의 영어교육경험, 상위언어능력, 모국어 및 영어어휘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53-272.

박가숙(2001). 인기유아의 사회적 언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엄정애(2017). 유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2(3), 25-46.

박성연(2006). 아동발달. 파주: 교문사.

반경하·서현아(2009).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취 기대에 따른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실태 연구. 인문학논총, 14(1), 121-148.

배미숙·서현아(2011). 어린이집의 영아조기영어교육 실태 및 원장과 교사의 인식-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6). 510-521.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서유헌(2002). 두뇌발달과 영유아 교육.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 강사요원 연수자료.

서유헌(2009). 뇌 기반 적기 교육과 영재 교육. 한국수학교육학회 제14회 국제수학영재세미나 프로시딩, 1-10.

서유헌(2010). 영유아기 뇌발달과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2010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7-25.

서은경·곽승주(2017). 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 실태 및 원장과 부모의 인식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 9(1), 203-230.

송미선·박현주·김정준(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15-134.

송순재(1997).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 정책 시행 이후의 반성. 신학과세계, 35, 263-300.

신귀련·조희숙(2002). 아동의 상위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유아교육연구, 22(4), 173-189.

신동주(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2), 349-374.

심성경·백영애·이영희·함은숙·변길희(2010). 놀이지도. 고양: 공동체.

안영애(2006).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 : 예비교사, 현직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우남희·이종희(1994). 한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1-42.

우남희·이종희(1996). 영어교육 조기화의 문제점 분석. 응용언어학, 9-10, 137-152.

이경호·김익균(2007). 아동발달과 조기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2), 115-134.

이귀옥·우남희(2008).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 이중언어학, 38, 305-340.

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기숙(2015). 적기교육. 서울: 글담출판.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3).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2, 1-112.

이석금·이진희(2015).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현대문법연구, 84, 115-140.

이선애·이채호(2014). 유아의 가정환경, 놀이 및 교사창의성이 유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253-270.

이영환·한영숙·정남숙(2001). 유아교육기관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 연구-관찰을 통한 현장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5, 21-56.

이윤진·문무경·김문정(2011).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운영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 5(1), 75-99.

이정림·배윤진·조혜주·송요현·고성룡·이정희(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지영·이경옥(2008). 남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또래유능성 및 또래인기도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93-112.

이현주·정영숙·장혜자(2004). 어린이집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 원장, 교사의 인식조사. 생활과학연구논총, 8(1), 1-24.

이혜란(1995). 영어 조기교육 현황 조사 및 앞으로의 방향. 응용언어학, 8, 3-35.

이효림·엄정애(2005). 유아의 정서능력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15.

장복명·임원신(1999). 천안지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분석 및 교사, 학부모 인식도 조사. 영어어문교육, 5, 191-218.

전소영(2011). 유아의 성에 따른 거친신체놀이에 대한 부-모간 인식 비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예화(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유아교육연구, 23(3), 285-305.

전홍주(2009).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본 유아 영어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29(3), 191-213.

정나영·정계숙(2016).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 정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 차이. 교사교육연구, 55(1), 70-82.

주보라·김은심·유지안(2015). 바깥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리더십 및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123-142.

천희영·서현아·좌승화·배미숙(2011). 영아영어교육 실태 및 영어어머니의 영아영어교육 요구에의 영향 변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43-65.

최미숙·정유진(2017). 거친 신체놀이 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3), 123-141.

최지영(2008).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189-214.

하연희·천희영(2005). 유아의 영어교육 시작연령과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어와 사회성 발달, 아동연구, 14, 35-53.

한유미·이진화(1997).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20, 325-342.

한유미·조복희(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9-216.

홍채연·허근(2013). 오감을 활용한 영어지도가 유아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539-567.

황혜신(2004).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97-506.

Alvarez, L. (2005. April 9). Educators flocking to Finland, land of literate children. New York Times, p. A4.

Barnett, L. A. (1984). Research note: Young children's resolution of distress through pla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3), 477-483.

Ben-Zeev, S. (1977).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strategy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8(3), 1009-1018.

Bergen, D., & Mauer, D. (2000). Symbolic play, phonological awareness, and literacy skills at three age levels. In K. A. Roskos & J. F. Christie (Eds.), Play and literacy in early childhood: Research from multiple perspectives (pp. 45-6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Bornstein, M. H. (2007). On the significance of social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arliest symbolic play: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A. Göncü & S. Gaskins (Eds.), Play and development: Evolutionary, sociocultur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pp. 101-12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ristie, J. F., & Roskos, K. A. (2006). Standards, science, and the role of play in early literacy education. In D. G. Singer, R. M. Golinkoff, & K. Hirsh-Pasek (Eds.), Play = learning: How play motivates and enhances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emotional growth (pp. 57-73).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Cohen, Y. & Norst, M. J. (1989). Fear, dependence and loss of self-esteem: Affective barr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mong adults. RELC Journal, 20(2), 61-77.

Csikszentmihalyi, M. (2013).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NY: Harper Collins.

Cummins, J. (1976).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growth: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and explanatory hypothese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No. 9, 1-43.

Cummins, J. (1978). Bilingualism and the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ware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2), 131-149.

Dattner, R. (1995). 어린이 놀이환경 디자인(김정태 역). 서울: 기문당. (1969년 원저 발간)

de Bot, K. (2014). The effectiveness of early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Netherlands.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3), 409-418.

Dickinson, D. K. & Tabors, P. O. (2001). Beginning literacy with language: Young children learning at home and school. Baltimore, MD: P.H. Brookes Publishing Company.

Galyer K. T., & Evans, I. M. (2001). Pretend play an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66(1), 93-108.

Gardner, H. (2007). Five minds for the futur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16). Becoming brilliant: What science tells us about raising successful children. Washington, N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irsh-Pasek, K., & Golinkoff, R. (2008). Why Play = Learning. In P. K. Smith (Ed.),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June 2013 ed.). Retrieved from http://www.child-encyclopedia.com/play/according-experts/why-play-learning (2018. 4. 17 인출)

Hirsh-Pasek, K., Golinkoff, R. M., Berk L. E., & Singer, D. (2008). A mandate for playful learning in preschool: applying the scientific eviden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orwitz, E. K. (1996). Even teachers get the blues: Recognizing and alleviating language teachers' feeling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Foreign Language Annals, 29(3), 365- 372.

Horwitz, E. K. (2010). Foreign and second language anxiety. Language Teaching, 43(2), 154-167.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25-132.

Ianco-Worrall, A. D. (197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3(4), 1390-1400.

Jensen, J. V. (1962). Effects of childhood bilingualism. Elementary English, 39(2), 132-143.

Koch, A. S. & Terrell, T. D. (1991). Affective reactions of foreign language students to natural approach activities and teaching techniques. In E. K. Horwitz, & D. J. Young (Eds.), Language 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 (pp. 109-126).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Peal, E., & Lambert, W. E. (1962). The relation of bilingualism to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6(27), 1-23.

Price, M. L. (1991).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foreign language anxiety: Interviews with highly anxious students. In E. K. Horwitz, & D. J. Young (Eds.), Language 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 (pp. 101-108).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Scott, E., & Panksepp, J. (2003). Rough-and-tumble play in human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29(6), 539-551.

Seo, K. H., & Ginsburg, H. P. (2003). What is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Lessons from new research. In D. H. Clements, J. Sarama, & A-M. DiBiase (Eds.), Engaging young children in Mathematics: Standards for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pp. 91-10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Wing, L. A. (1995). Play is not the work of the child: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work and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2), 223-247.

Wong-Fillmore, L. M. (1976). The second time around: Cognitive and social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F 010116).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2018. 4. 17 인출)

Youngblade, L. M., & Dunn, J.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pretend play with mother and sibling: Links to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liefs. Child Development, 66(5), 1472-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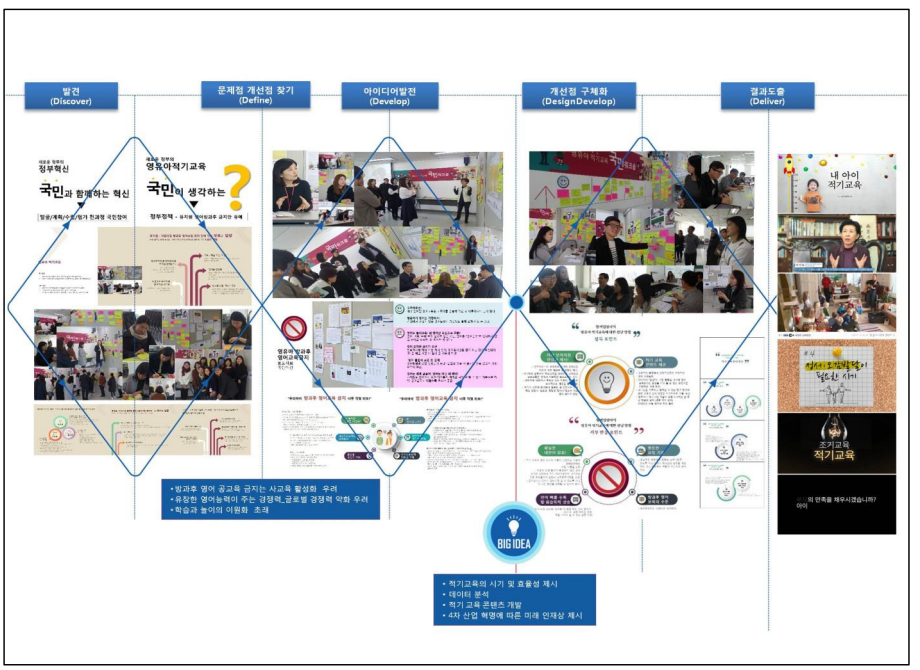
〈인터넷 자료〉

NAEYC 홈페이지 https://www.naeyc.org/resources/topics/dap (2018. 4. 14 인출)

부록

부록 1. 영유아 적기교육 국민참여 워크숍 자료
부록 2.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부록 1. 영유아 적기교육 국민참여 워크숍 자료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

발굴/계획/수립/평가 전 과정 국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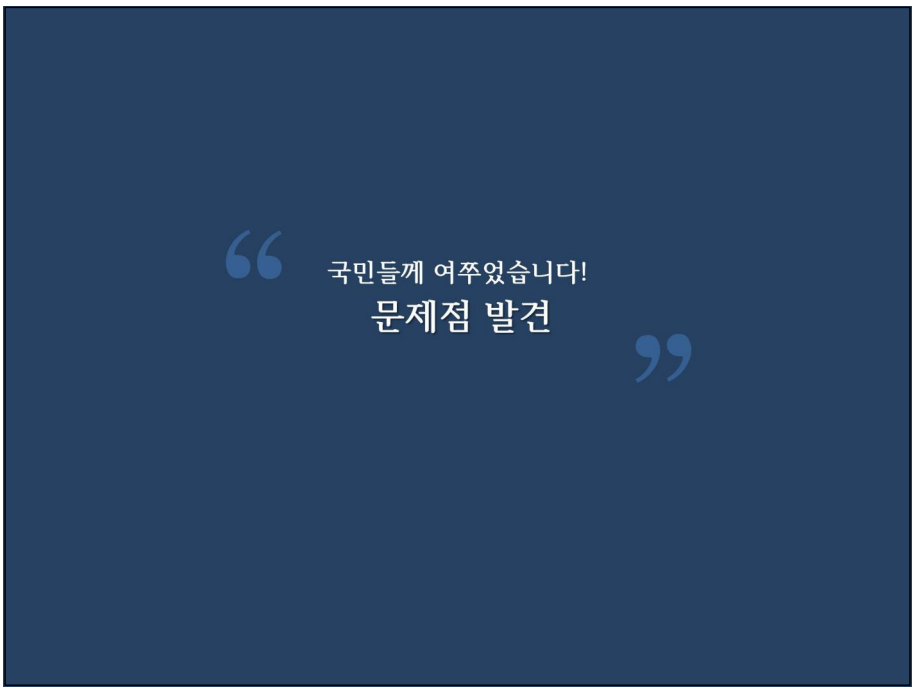
새로운 정부의

영유아 적기교육

국민이 생각하는 ?

▼

정부정책 -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안 유예


국민들께 여쭈었습니다!
문제점 발견

국민워크숍
영유아 적기교육 국민워크숍
국민워크숍

우리아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너무 걱정 되요!
왜!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왜!
영어만 금지?
사교육으로라도
할 거예요!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부재

"우리아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너무 걱정 되요!"

학습보다는 놀이의 개념

- 영어에 **노출시켜 친근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 언어는 학습적 관점(Learning)보다 **습득의 관점**(Acquisition)**으로 접근**
- **풍부한 언어적 자극**(Input)이 언어습득을 도움
- 노래, 영화, 연극, 혹은 역할극, 놀이, 등등.... 심지어 요리, 미술, 체육까지도 "영어"를 base로 모두 가능
-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영어교육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 개발 필요 (아동학, 유아교육, 영어교육 등 전문가들의 협업)

왜!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더 많은 비용 지불_빈부격차, 검증되지 않은 강사 및 교재

- 빈부격차에 의한 영어 습득, 저소득층 영어학습 기회 박탈
- 더 많은 비용_검증되지 않은 교재와 강사(성범죄 우려)
-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다
- 우리 애만 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사교육으로라도 할꺼예요!

영어는 국가 경쟁력

-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영어가 누리는 권력은 여전함.
- 우리사회의 영어에 대한 절대 권력
  - 사회적 명예, 부를 얻는데 도움
  - 학업적인 면에서 경쟁력 상승
  - 취업이나 승진에 영어 실력 필수
- 유창한 영어능력을 원한다면 모국어부터 탄탄히!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리아이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너무 걱정 되요!"

왜! 영어만 금지?

영어 놀이는 학습이 아니에요.

- 유아시기에 놀이와 함께하는 영어는 학습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 영어를 학습적 관점에 Learning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습득의 관점인 Acquire로 보아야 한다.
- 풍부한 언어적 자극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된다.
-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활동에 영어를 접목하여 진행하면 오히려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조기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해요.

- 조기 영어교육이 불필요한 이유와 또는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영어교육 적기"에 대해 부모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하기에는 학습량이 너무 많다.
- 유창한 영어실력은 아이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게 걱정되고 두렵다.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부재

정부가 바뀌면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국민은 혼란스러워요.

-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의 책임감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교육정책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영어교육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없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수능 영어시험의 수준이 너무 높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버겁다.
- 확실한 근거 없이 공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부추는 것이고 결국 빈부의 격차와 상대적 교육의 박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교사 등 관계자들이 충분히 회의와 분석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보도자료
국민의견

모국어 우선!
제 2 언어인 영어교육은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후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영유아기 영어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어렵지 않은 영어동요나 그림책을 통해 접하게 할 수 있다.

영어도 놀이교육! 왜 영어만 학습으로 구분?
영어, 과학, 수학 모두 놀이로 접근 가능함. 영어를 "영어공부"로 인식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함. 왜 영어만 못하게?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가 우선
빈부격차에 따라 학습 격차 반대.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안 배울 거면 다 같이 안 배우게 해야!

"영어 몰입식 교육"의 문제
영어학원에 대한 전면금지 보다 "몰입식 교육"의 문제에 교육 당국의 지도, 감독이 필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 언어는 어릴 때 해야!
세계화를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함. 언어습득도 어릴수록 효과가 좋음!

국민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해결방법 찾기 아이디어

- 교육과 문화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이용
- 유아교육의 미래적인 공교육화의 개발
- IQ개발과 EQ개발의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제시
-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수용자인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관리하는 산하조직의 일원화 필요
- 교육부장관이 정부에 의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져오므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신설된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음.
- 몰입식 교육이 아닌 영유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영어 공교육화가 급선무이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금지는 반발심을 키우므로 영어 공교육에 대한 큰 크림의 제안이 필요
-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관점을 바꾸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 모든 정책의 핵심은 입시와 취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시에 대한 유연성 확대
- 중·고등생 또는 대학생들에게 영유아시기에 얼만큼의 영어교육에 몰입하고 노출되었었는지, 그 당시 교육이 실질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대규모 추적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정보 제공
- 초·중·고등을 관통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공감과 신뢰 얻기
-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함. 국가교육정책 일관성 보다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걸맞은 단계를 해야한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와 시기의 문제임. "테스트에 대한 단계별 학습"
-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했지만 이 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함.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함. 교육도 국투개발이나 다른 정책처럼 10년 교육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음. 고교 영어 내신만 절대평가 하지 말고 중학교 교육과정도 손볼 필요가 있음 (예: 중·고 내신도 절대 평가 도입 등)
- 국가 교육은 기본 소양교육이라면 기본 장기 계획에 반영하자.
- 기본틀을 바꾸지 말고 내용과 콘텐츠를 보완하자.
- 그 동안의 영어교육의 실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 요인 제시-> 개선안 도출
-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함.

국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

- 영유아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초3 이후에 실시하려고 한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영어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
- 글로벌 경쟁력은 발음보다는 실질적인 컨텐츠나 어휘력 구사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법 제안
- EBS 유아 영어채널을 신설하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더빙없이 자막으로 영어방송이 나오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듣기에 익숙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강화
- '4차산업혁명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인재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인성,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글로벌 경쟁력은 발음 보다는 내용!
- 방과후 영어를 금지 한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되지는 않을 것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면 한다. 선택이 가능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길.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은 영어가 아닌 생각하는 힘과 인성
- 그 동안의 교육정책에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아님. 교육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 집체 교육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문화센터(수영 강습)와 같은 단계로 구분해서 익혀야 함.
- 영어와 중국어는 경쟁력 있는 언어임. 국가 경쟁력이 있기 위하여 모국어•영어•중국어는 공교육에서 책임져줄 수 있도록 함.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언론을 통해 정확히 '영유아 적기교육'이 무엇인지를 발표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커리큘럼 제시
-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은 제1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초등 3학년의 교육과정에 시작해도 늦지 않음을 강조하고 성공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
- 평균적인 영어교육의 적기는 초등학교 3학년 공교육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및 분석을 통한 실직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영어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4~7세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며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체될만한 학교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실시
- 언제 외국어(영어)를 가르치는게 좋으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 그럼에도 굳이 "시기"를 특정하자면, 모국어를 거의 마스터한 직후, 나이로는 만 10세라고 생각함.
- 영어교육의 적기는 개인(부모)이 원하는 때에 국가는 교육서비스를 공급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 6~12세에 측두엽이 발달함(언어의 뇌 상승). 모국어가 형성되는 4~6세 정도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 영어공부가 (접근)가능하다 생각됨.

영어교육 적기는 언제?

- 현재 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고 자료 공개 필요
- 공교육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아이들의 나이대에 맞는 '즐거운 수업 ' 과 '수준 높은 선생님'이 필요함. 실제 영어를 못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고 발음이나 어휘구사력이 오히려 아이들보다 부족한 교사들도 존재함.
-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영어선생님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고 공교육 현장에 배치하여 보편타당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
-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 얻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안
- 사교육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가 아닌 정규과목을 편성하여 많은 시간 동안 몰입식 교육 실시
- 가정에서 엄마나 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이 가능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만들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 (영상, 무료 교재, 놀이 방법 등)
- 현재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임.
- 영유아기 영어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잘 키워낸 실례들로 설득 및 신뢰감 유도
- 영어교육 정책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접근해야 영어 사교육 문제도 해결 가능
- 공교육을 금지하기 보다는 사교육을 뛰어넘을 내실 쌓기!
-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여러 아이들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사교육으로라도 할 거예요!

-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이 문제를 야기하였고 놀이=공부라는 전재 하에 정책이 결정되고 유아에 맞는 연령별 교육을 실시하며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초 3이전에는 놀이를 통해 영어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후에 학습적인 부분에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
- 영어에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TV,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영어 애니매이션이나 영어게임은 오히려 선호하는 현상이 문제
- 유치원 본질에 맞게 누리과정을 놀이중심의 과정이 되도록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
-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놀이' 개념 정의부터 시작이 필요
- EQ개발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율성 증진
- 어학은 다른 과목과 달라서 놀이로 충분히 습득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 '쉼 ' 을 강조하고 "영어는 공부라서 금지"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유아기 영어는 공부라고 하기 힘들다.
- 정부 정책에서 "쉼"을 중시 여긴다면 유아기 "영어 쓰기 금지" 교육 정도면 될 것 같다!
-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끌어내며 자극 주는 방법으로 영어 습득
- 영어는 언어이다. 시험 만을 위한 공부가 아님.
- 방과후는 보육의 역할
  굳이 영어를 금지 하는 것 의미 없음. 음악, 미술 방과후를 선택하는 것처럼 영어 수업도 선택사항을 남겨두자

왜 ! 놀이와 공부를 이원화?

청소년대상

영유아기교육경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

전문가
인터뷰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는 최고의 양육법
적기교육
유아교육 전문가 이기숙 교수가 알려주는
아이 성장의 비밀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배움의 적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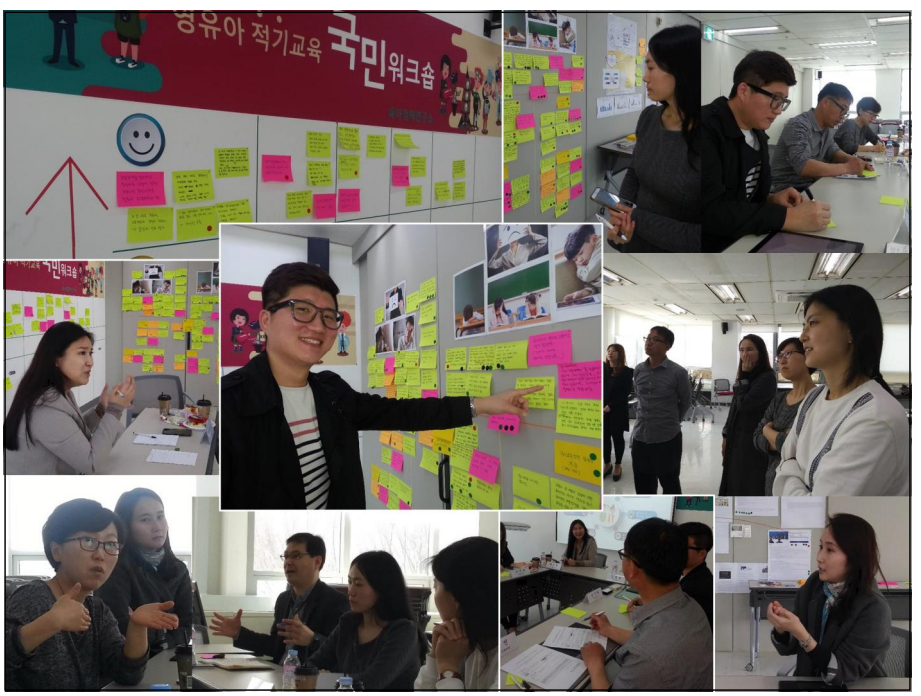
“학부모대상 모의 ‘교육/세미나’
터치포인트”

정책입안자의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전달 방법
거부 반응 포인트
확실한 대한이 없음!
• 적기교육에 대한 다수의 이론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책입안자는
- 어떤 이론을 선택
- 어떻게 운영 할 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영어교육만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교육공백기만을 조성
• 금지한다고 안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한 교육 기회
• 공교육은 공공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맞으며, 최소한의 환경을 제한하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과후 영어 교육의 수준
• 방과후 교육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언어 빠를수록 발음 습득력 상승
• 도서 비용이 비싸며, 방과후 다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 (도서관, 상호 대차를 통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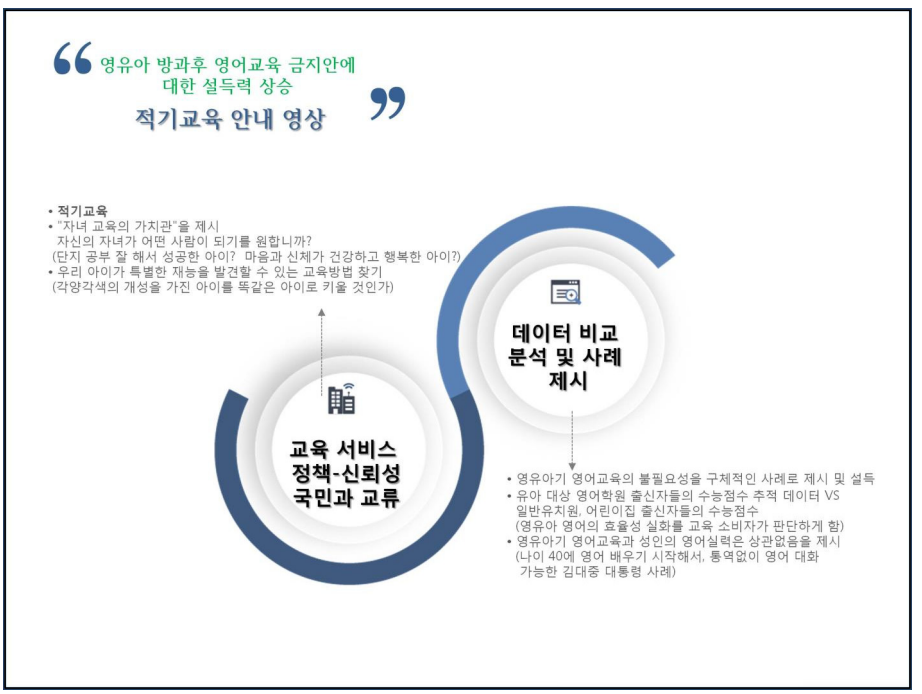
정책입양자의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전달 방법
설득 포인트
미래 인적자원 양성과 제시!
• "인적자원 " 이 귀중하며 그러한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제대로 된 방향성 제시
• 여가부와 협력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부모교육 실시
• 영어교육 광풍이나 효율성 없는 거품에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함.
• 국가가 시류에 편성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용인해선 안된다. 실효성, 정당성면에서 방과후 학교 영어 금지가 정답
적기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사례 발표
• 아이에게 "감성"이 가장 발달할 시기에 영어 교육보다는 감성을 키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
•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할 수 있는 탐구 탐색에 관한 교육과 놀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영유아기 때 1~2년 학습이 초등 3~4학년 한 두 달 학습효과와 같다(별로 차이 없다). 즉,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교육시킬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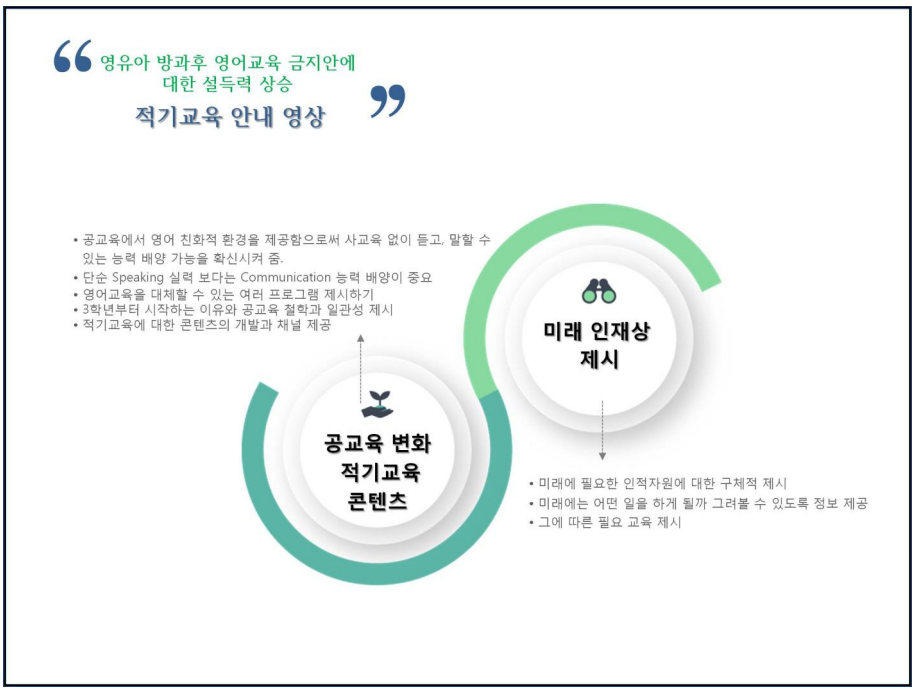
영유아 적기교육

안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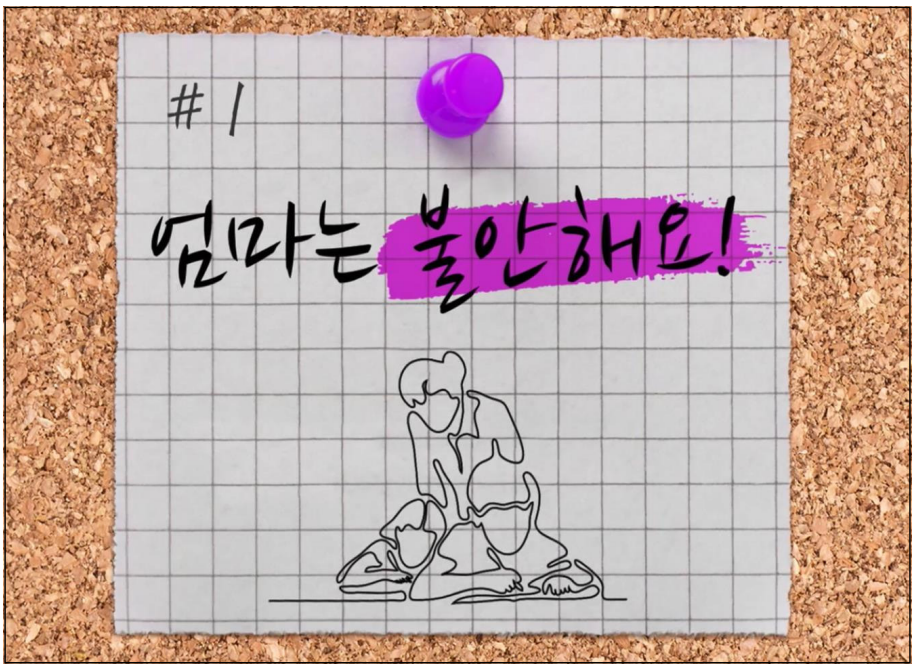


영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안에
대한 설득력 상승
적기교육 안내 영상
교육 서비스
정책-신뢰성
국민과 교류
데이터 비교
분석 및 사례
제시
공교육 변화
적기교육
콘텐츠
미래 인재상
제시


영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안에
대한 설득력 상승
적기교육 안내 영상
• 적기교육
• "자녀 교육의 가치관"을 제시
자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단지 공부 잘 해서 성공한 아이? 마음과 신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 우리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방법 찾기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아이를 똑같은 아이로 키울 것인가)
교육 서비스
정책-신뢰성
국민과 교류
데이터 비교
분석 및 사례
제시
• 영유아기 영어교육의 불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 및 설득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출신자들의 수능점수 추적 데이터 VS
일반유치원, 어린이집 출신자들의 수능점수
(영유아 영어의 효율성 실화를 교육 소비자가 판단하게 함)
• 영유아기 영어교육과 성인의 영어실력은 상관없음을 제시
(나이 40에 영어 배우기 시작해서, 통역없이 영어 대화
가능한 김대중 대통령 사례)


영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안에
대한 설득력 상승
적기교육 안내 영상
• 공교육에서 영어 친화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없이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가능을 확신시켜 줌.
• 단순 Speaking 실력 보다는 Communication 능력 배양이 중요
• 영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제시하기
• 3학년부터 시작하는 이유와 공교육 철학과 일관성 제시
• 적기교육에 대한 콘텐츠의 개발과 채널 제공
공교육 변화
적기교육
콘텐츠
미래 인재상
제시
• 미래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구체적 제시
•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려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그에 따른 필요 교육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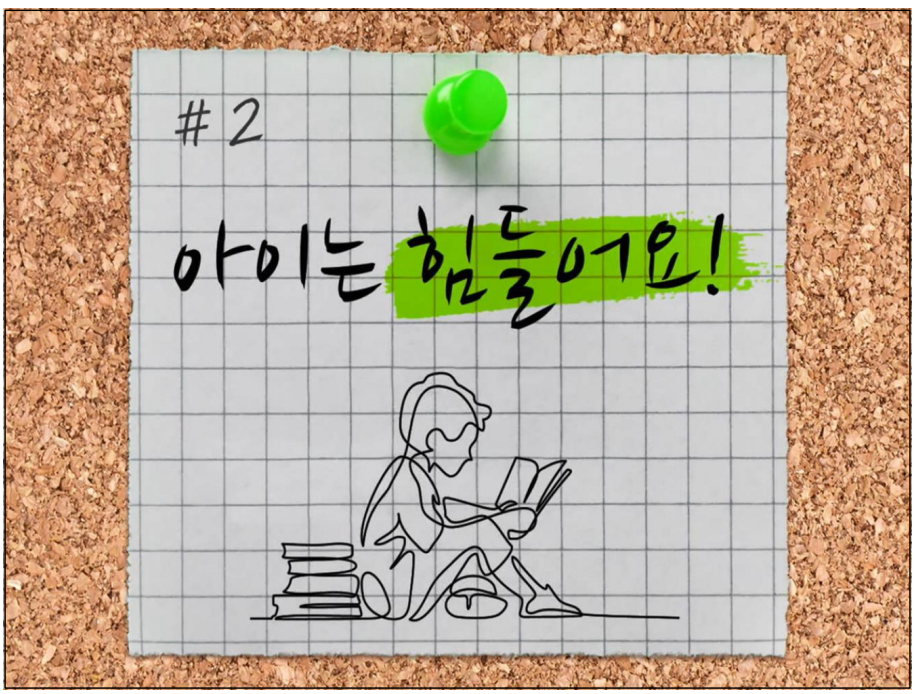
부록 2.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뒤쳐질까
불안해요!
뒤쳐질까 불안해요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제 아이만 못 따라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7세 엄마 김미옥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아이가 잘 따라가줘서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혹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될까, 지쳐서 나중에 오히려 못하게 될까 불안합니다.”
6세 엄마 김경옥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시켜야 할 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명확하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지 답을 안 해주니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어렵습니다."
6세 엄마 임리나


2
아이는 힘들어요!

교구교육

한글교육

미술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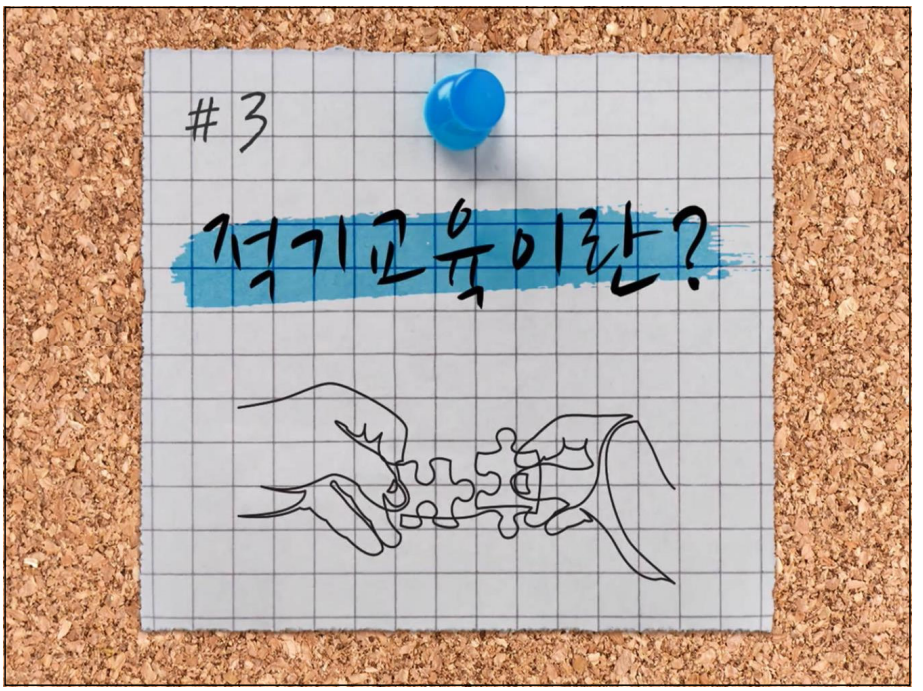
Do you speak
English?
외국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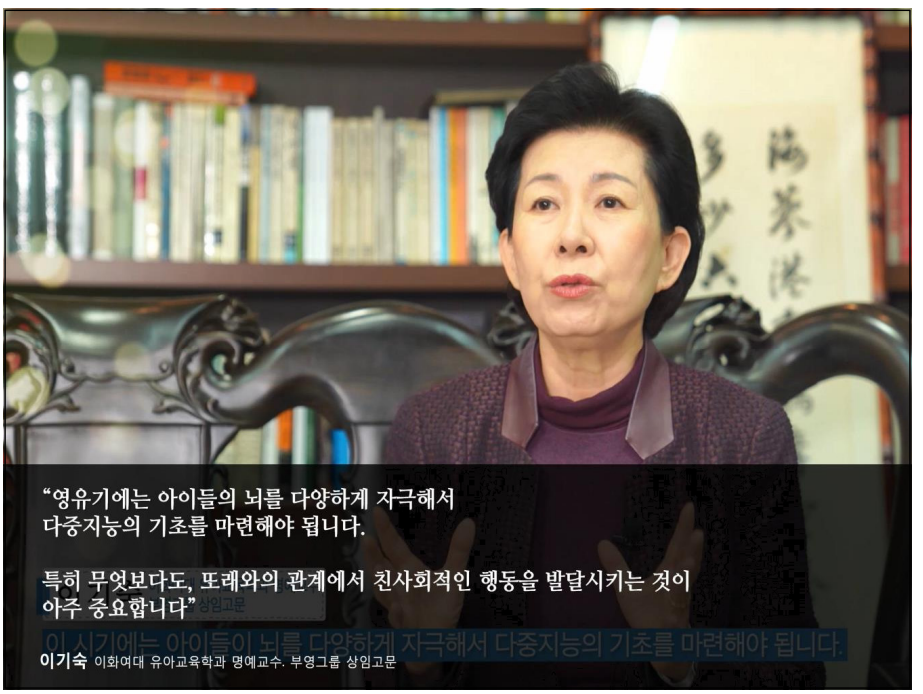
Q: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영어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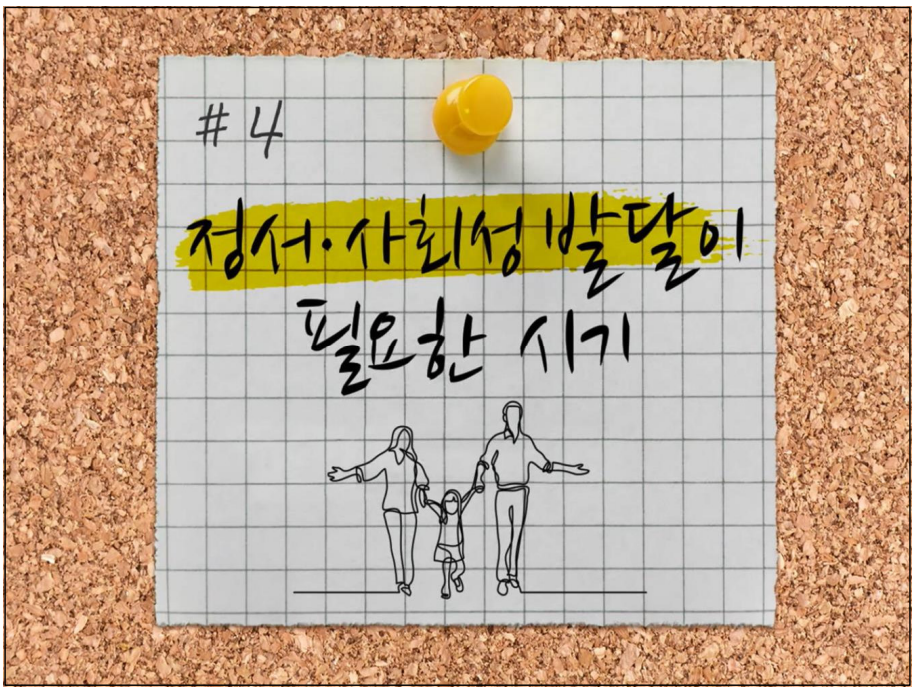
Q: 뭐하고 놀 때가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요!

아이의 호기심을 억누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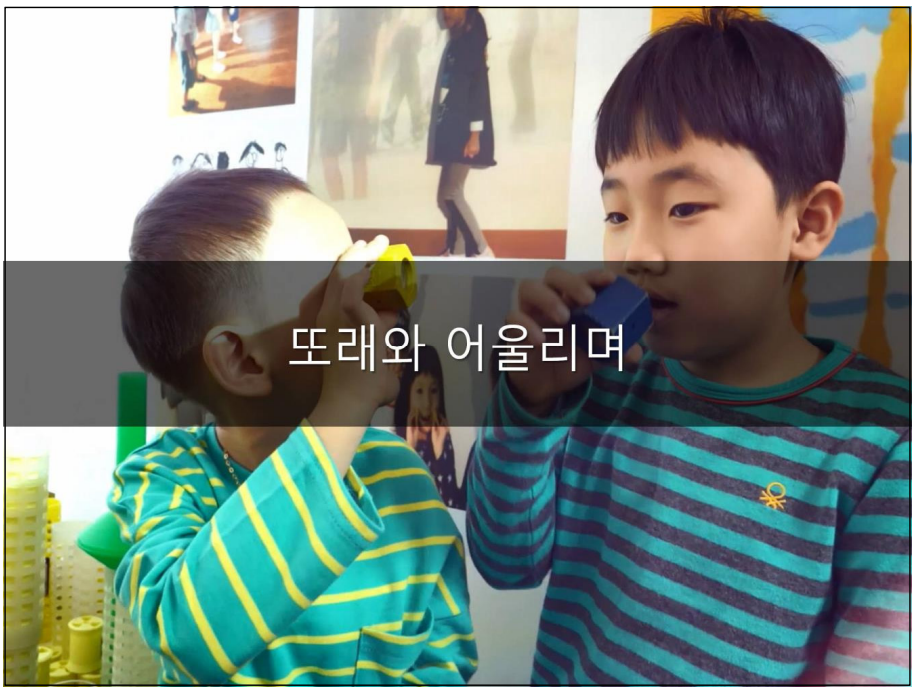
아이의 호기심을 억누른
부모의 불안감


#3
적기교육이란?


"영유기에는 아이들의 뇌를 다양하게 자극해서
다중지능의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부영그룹 상임고문


4
정서·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시기

구체적인 사물을 탐색하고


또래와 어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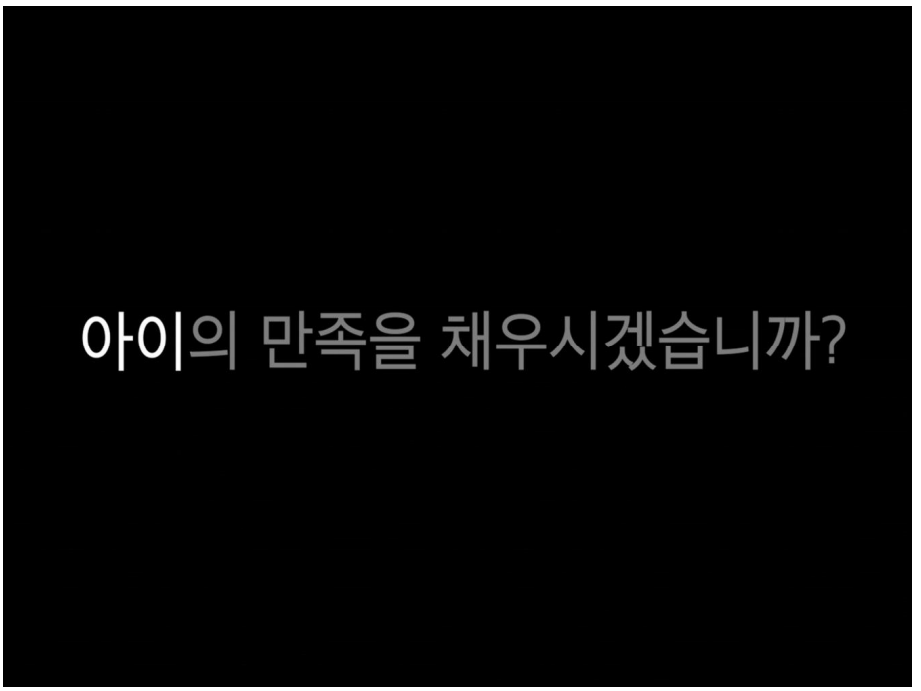
신체활동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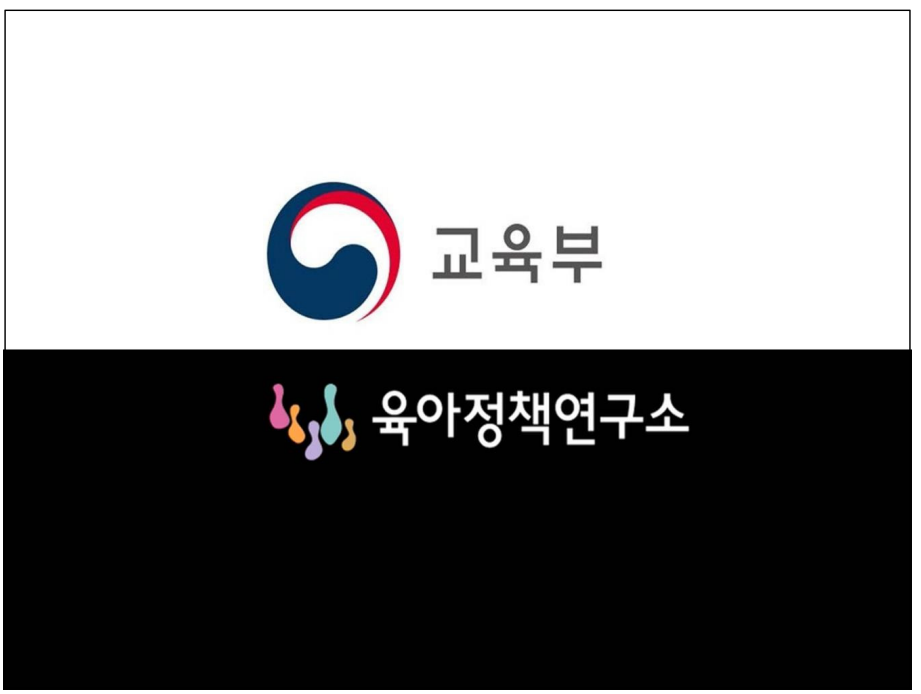
정서와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시기

조기교육
적기교육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 아이에게
지금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

부모의 만족을 채우시겠습니까?


아이의 만족을 채우시겠습니까?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572 93370
ISBN 979-11-87952-57-2